

이소선 10주기 토론회 기록집

# 내가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이소선 10주기 토론회 기록집

# 내가 너의 뜻을 이룰게

-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

- 일 시 : 2021년 9월 1일 오전 10:00 ~ 12:00
- 장 소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2층 올림터
- 주 최 : 서울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 주 관 : 전태일기념관, 전태일재단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의 의미

- 노동자의 어머니에서 노동인권운동가로 -

전태일열사의 어머니가 아닌, 한 인간으로 이소선의 삶과 사회적 역할을 찾아보려는 시도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소선 어머니는 평생을 지독하게 따라붙는 가난과 시련속에서도 좌절하거나 기죽지 않고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해 오신 분이다.

네 살때 아버지가 항일운동을 하다 동네 뒷산에서 학살당하였고, 열 다섯에는 일본군 정신대로 끌려가다가 어머니의 노력으로 군수공장에 배치되자 기지를 발휘해 담을 뛰어 넘어 탈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역사의 고난속에서 자연스럽게 저항정신의 피가 흐르고 있었을 것이다.

남편 전상수와 결혼해서 4남매를 키우면서도 시련이 멈추지 않았으니 그 참혹한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전태일이 불의나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정신과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은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다.

전태일의 분신항거라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보통의 어머니라면 아마 기절하거나 넋이 나가 주변의 상황에 이끌려 갔을 터인데, 이소선 어머니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아들이 당부한 유언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흔들림없이 대처해 나가셨다. 그로부터 10여년은 전태일의 어머니로, 청계피복노동조합의 활동가로, 민주노조 운동의 연대투쟁으로 ‘노동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학생과 지식인, 종교계의 민주, 통일운동이 노동운동으로 전선이 확대된 것은 전태일의 분신항거와 이소선의 굵직한 투쟁의 결과이다.

80년대에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투쟁이 격화되자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이 많아졌고 이소선 어머니는 가장 먼저 유가족에게 다가가 언덕이 되어 주셨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며 마음 둘 곳 없는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치유, 투쟁의 장소인 ‘한울삶’이라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의문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투쟁을 이끄시는 등 ‘인권운동가’로 활동하셨다.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과 민주화운동 중심의 유가족 투쟁이 사회적 재난참사와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유가족 투쟁으로 이어지고 확대된 것을 살펴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유가족들의 투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믿고 있는 ‘사회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로, 사회적 죽음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발제자 전주희 연구원의 지적은 사회진보를 위한 투쟁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도 함께해 주신 박래군 님, 김미숙 님, 김혜영 님, 장남수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노동운동가로, 노동인권운동가로 살아오신 이소선 어머니는 연대와 단결을 강조하셨다. 사회적 약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할 때만이 진정한 사회변혁을 가져올 힘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손 잡아라, 하나 되어라’ 2021년 전태일재단의 이 구호는 앞으로도 가슴에 새겨야 할 이소선의 마음이다.

이 기록집을 시작으로 피해 당사자 가족 운동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정립하는 자리가 있기를 바란다.

전태일기념관 오동진 관장

## 토론회 소개

이 토론회 기록집은 이소선 어머니의 10주기를 맞아 ‘유가족 활동의 선구자’로서 이소선의 삶을 회고하고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등으로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진행하였습니다.

가족을 떠나 보낸 아픔을 뒤로하고 세상을 바꾸고자 헌신한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누리게 된 것, 또 여전히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전주희 연구원의 발제문을 제외한 본문의 각주는 이해를 돕고자 전태일기념관에서 추가하였습니다. 되도록 입말을 살렸으며 꼭 필요한 부분은 어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 | 참가자 |

- 진 행 :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박래전 열사의 형)
- 인 사 :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 발 제 :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토 론 : 장남수 (장현구 열사의 아버지)  
           유경근 (세월호 참사 故 유예은 학생 아버지)  
           김혜영 (故 이한빛PD 어머니)  
           김미숙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故 김용균 어머니)

## | 토론회 순서 |

| 일정                | 프로그램       | 진행자  |
|-------------------|------------|--|
| • 2021년 9월 1일 수요일 |            |  |
| 10:00~10:05       | 개회         | -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박래전 열사의 형)  |
| 10:10~10:10       | 인사말        | -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
| 10:10~10:40       | 발제         | -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실)   |
| 10:40~11:30       | 토론자 발언     | - 장남수 (장현구 열사의 아버지)<br>- 유경근 (세월호 참사 故 유예은 학생 아버지)<br>- 김혜영 (故 이한빛PD 어머니)<br>- 김미숙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故 김용균 어머니) |
| 11:30~12:00       | 질의 응답 및 토론 | - 토론자 전원   |



# 목 차

|  |                             |
|--|-----------------------------|
| • 발간사 .....                            | 2                           |
|  | 오동진 (전태일기념관 관장)             |
| • 토론회 소개 .....                         | 4                           |
| • 여는말 .....                            | 9                           |
|  |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
|  |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박래전 열사의 형) |
| • 응답에서 책임으로 -유가족 운동의 역사적·사회적 의미- ..... | 13                          |
|  | 전주희(서교인문사회 연구실 연구원)         |
| • 토론회 .....                            | 51                          |
|  | 전주희                         |
|  | 장남수 (장현구 열사의 아버지)           |
|  | 유경근 (세월호 참사 故 유예은 학생 아버지)   |
|  | 김혜영 (故 이한빛PD 어머니)           |
|  | 김미숙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故 김용균 어머니) |
| • 마무리 발언 .....                         | 85                          |





## | 여는 말 |



### 박래군(진행자)

이소선 어머니 10주기를 맞아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지금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을 넘어서 모두의 어머니 이소선으로 불리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주년 되었습니다.

9월 3일이면 추모식을 해야되는데 코로나19 격상으로 추모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추모식은 무기한 연기했고, 대신 여기 전태일기념관에서 이소선10주기 특별기획전 《목소리》라고 하는 이름의 전시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추모하는, 기억하는 모든 분은 여기 전태일기념관 전시도 보고 온라인추모관에서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10주기 추모 행사 일환으로, 우리가 어머니를 여태까지 어머니 어머니 하다 보니까 놓치고 있었는데, 이소선을 유가족 활동과 유가족 운동을 개척해 왔고 또 선도해 왔던 활동가로서 재조명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발표가 준비돼 있고, 다른 유가족들도 토론회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서 전태일재단의 이수호 이사장님으로부터  
토론회 여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서 이렇게밖에 여러분에게 다가갈 길이 없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뜨거웠던 순간들,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도 회고하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또 열려고 했던, 지금도 치열하게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했는데,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소선 어머니,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유족에게로 운동 정신이 그의 삶의 목표가 이어지고 어머니를 통해서 전태일이 이루고자 했던 꿈을 얼마만큼이라도 이루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가신 우리 이소선 어머니가 전태일 곁으로 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하고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어머니 계실 때 그 아들의 뜻을 이어서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듯한 느낌으로 우리 곁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로 수많은 열사들, 피해자들의 유족이신 아버님 어머님들을 특별히 모시고 그러한 삶에 대한 증언들, 각오와 생각들,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고 함께 싸워가고 있는가 하는 현실들을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발제해 주실 전주희 연구원께 감사를 드리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장현구 열사의 아버지 장남수 회장님, 세월호 희생자 예은 아빠 유경근 선생님, 우리 이한빛 엄마 김혜영 어머님, 용균이 엄마 김미숙 어머니께서 이 자리에 직접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로 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울러 사회를 맡아주신 박래전 열사 박래군 동지께도 고마운 인사드립니다.

전태일재단은 전태일기념관과 함께 돌아가신 분들의 유지를 잘 받들고 그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한 모든 분께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께 고마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래군(진행자)

맞습니다. 이소선 어머니가 참 많이 그립습니다. 십 년 전인데도 아직도 그리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마흔한 살에 큰아들 전태일을 잃었습니다. 전태일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에게 다짐을 받고자 했습니다.

약속을 받아 냈죠.

그래서 어머니가 죽어가는 전태일한테 ‘내가 네 뜻을 이룰게’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41년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걸어오셨던 길에 대해서 오늘 발제를 통해서 확인할 거고요. 이렇게 어머니가 만들어냈던 유가족운동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 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와 토론하시는 분들은 이수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별도로 소개하지 않고, 발표하실 분들은 (무대) 앞쪽에 나가서 말씀하시니까, 그때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5·18 유가족인 이정현 열사의 어머니 구선학 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연로하시기도 하고 코로나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 못 오셔서, 5·18 유가족을 모시면 좋았을 텐데 못 모셔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럼 곧바로 발제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주희 연구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주제를 발제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이 주제 가지고 우리나라에 연구하신 분들을 찾아 보니까 그 연구자가 없었어요.

그동안 유가족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불모지 상태에서 어떤 새롭게 이 발제를 하게 되는 발표문을 쓰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 양해하시고 발표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에서 책임으로

## - 유가족 운동의 역사적·사회적 의미 -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 응답에서 책임으로

## - 유가족 운동의 역사적·사회적 의미 -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 1. 유가족 운동, 죽음에 대한 응답의 차원에서 수행되는 행위

유가족 운동은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과 함께 시작되었다. 통상 ‘운동’은 사회의 변화를 위한 집단적인 행위와 실천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유가족운동’은 단 한 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소선이 이 운동의 출발점이다.

유가족은 ‘죽은 사람의 뒤에 남은 가족’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가족 운동의 차원에서 호명되는 유가족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외부의 강제적인 행위’에 의해 혈육을 잃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정의한다. 따라서 죽음은 삶의 종결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이 해독(解讀)해야 할 메시지가 된다.

분신과 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가 되었건, 죽음의 원인 자체가 불분명한 의문의 죽음이 되었건, 일상적인 산업재해로 인한 죽음이나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참사로 인한 죽음이 되었건, 이들의 죽음은 모두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을 포함하게 된다.

“유가족은 자신의 혈육을 잃은 사람입니다. 혈육을 잃은 것도 자연적으로 잃게 된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행위에 의해(고문에 의해 죽었던,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잃은 사람입니다. 이 점이 일반적인 유가족들과 우리들이 말하는 유가족이 다른 것입니다. 또 우리는 혈육을 잃음에 있어 사회적인 억압구조-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반인간적 사회구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혈육들은 외세와 대항해서 독재정권과 맞서서 또는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묵살하는 체제의 폭력에 의해 희생되었던 것입니다.”(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소식지 ‘한울삶 1호)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모든 유가족들이 유가족 운동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유가족이라는 부여된 ‘지위’가 단지 운동의 조건이 될 뿐, 그 이후의 행위는 개별의 선택에 따른 의식적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유가족들을 불의의 사건을 겪은 피해자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문제적이다. 유가족 집단을 피해자화하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된 죽음들이 제기하는 메시지를 해독해내지 못하는 사회적 무능력을 정당화한다.

그런 면에서 시대에 따라 그 역사적 형태를 달리해서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죽음들의 지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열사들의 죽음’과 의문사, 5·18, 그리고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참사와 자본주의 성립 이래 끊이지 않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이 그 역사적 형태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지만 ‘사회적 죽음’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들 사회적 죽음은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시스템의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가령 독재정권이라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예외성(민주정부들의 합리화된 폭력과 억압구조는 여전히 존재한다), 박근혜 정부라는 무능력한 정권이 갖는 예외성(지금까지 모든 참사에 대해 모든 정부는 무능했다), 노동자의 죽음을 죽음이라는 무게로 인정하지 않아왔던, 기업활동에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치부해왔던 자본주의에 내재한 문제들은 ‘삶’과 ‘죽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삶의 영역에 죽음을 배제해왔던 오래된 허구적 믿음에 기반해 ‘예외적인 죽음’으로 죽음을 개인에게 닥친 불운한 것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오히려 죽음을 개별적인 삶의 종결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믿어왔던 기존의 정치적, 사회적, 국가적 시스템의 모순과 부조리함이 무엇인지 알아챌 수 있다. 살아 있는 자들이 삶을 이어간다는 것은 기존 질서의 일부가 되어, 기존 질서의 모순조차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불현 듯 발생한 죽음이 집단적인 수면상태에 놓인 사회에 각성의 계기가 된다.

전태일의 죽음이 노동현장의 살인적인 열악함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자기 목소리를 가질 때 어떤 벽에 부딪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각성,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불현 듯 상기시킨 모든 사회적 참사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제기한 신자유주의가 퇴행시킨 노동조건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은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는 이미 익숙해져버린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결과라는 점이다. 때문에 죽음은 삶의 영역으로 다시 기입되어야 하며, 이 죽음을 곁에 두고 삶에 대한 사회적 조건을 둘러싼 투쟁이 개시된다는 것은 ‘죽음의 원인을 둘러싼 투쟁’ 혹은 ‘죽음의 사회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투쟁’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 면에서 유가족 운동의 첫 출발은 이 죽음의 문제가 개별적 불운이나 개인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 출발은 매우 구체적인 죽음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읽어내는 것, 그 죽음에 응답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재구성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대구지하철 참사가 터지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면서 단 한 가지만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다. 이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랄까? 우리가 무엇을 하길 바라고 있을까?” (대구지하철참사 윤석기 희생자대책위 위원장)<sup>1)</sup>

“내 아들 한열이가 왜 망월동 3묘역에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밤낮없이 시위현장에서 독재타도, 호헌철폐를 외치며, 최루탄 숲 속을 헤치며 한없이 울고 또 울었다.”(배은심, 이한열의 어머니)<sup>2)</sup>

1) 2021년 2월 인터뷰.

2) 송기억·정윤영 기록,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편찬, 〈너의사랑 나의투쟁〉, 2016.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나는 아직도 철이가 죽음과 맞바꾸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그것은 한 인간의 사랑일 것이다. 그 사랑은 무엇일까? 스물세 살의 철이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무엇을 꿈꾸었을까? 나는 그 답을 지금도 찾고 있다.”(박정기, 박종철의 아버지)<sup>3)</sup>

그리고 유가족들의 ‘응답’은 죽음에 대해 이웃이나 친척들의 얼굴을 한 사회적 압력, 죽음에 대한 개별화, 무의미화, 개인책임화의 문제에 맞서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보성에서 광주 가고 서울 간다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보성이라는 데는 민주화라는 것은 알지도 못해. 뭘지도 모르고 철수더러 ‘그 새끼 공부하기 싫으니까 뒤흔지’ 이란다고.”(선영심, 김철수의 어머니)<sup>4)</sup>

“〈평전〉에 의하면, 이소선은 자존심이 강하고, 아이들에게도 엄격한 예의범절을 가르쳤는데,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자가 전태일이었다. 그래서 그가 분신자살을 기도했을 때, 친척들은 입을 모아 “이소선이 결국 제 아들을 죽였다.”고 비난했다고 한다.”(〈평전〉, 36쪽)<sup>5)</sup>

열사들의 죽음이나, 의문사, 5·18민주화 운동 당시의 죽음들에 대해서는 ‘빨갱이’라는 낙인으로부터 죽음의 의미가 왜곡된 것이라면,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유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혐오발언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첫째.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이 지체되면서 참사에 따른 죽음이 우연적인 것, 교통사고와 같은 것으로 치부되면서 죽음 자체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역사적 과정이 존재하다. 둘째.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진전 뒤에서 경제적 민주주의의 퇴행, 신자유주의로 인한 불평등과 불안정한 삶이 일반화되는 조건 하에서 격화된 생존경쟁은 죽음을 되돌아보는 의례의 해체를 가속화하고 생존을 위해 삶의 지속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면서 죽음의 의미가 더욱 퇴행적으로 무의미화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런 한에서 오늘날 재난참사 유가족, 산재 유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죽음의 개인책임화 담론은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가족 운동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과정과 세월호 이후 재난참사 유가족, 산재사망 유가족의 운동으로 구별될 수 있지만 유가족 운동이 갖는 동형적인 구조는 연속적이라고 볼 수

3) 위의 책, 33쪽.

4) 위의 책, 136쪽.

5) 마나베 유코, 〈열사의 탄생〉, 민속원, 2015. 218쪽.

있다. 이는 죽음의 책임을 둘러싸고 벌어진다. 개인책임에서 집단의 책임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운동, ‘과거에 죽은 사람’에 대한 책임의식은 그 죽음의 배후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부조리 등의 문제를 규명하면서 ‘미래의 책임’으로 나아간다.<sup>6)</sup>

이러한 책임의 전환을 위해 유가족들은 역설적이게도 스스로에게 책임의 무게를 지운다. 그것은 ‘자책’이라는 정서를 포함한 사회적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과정과 결부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이소선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유가족 운동에서 나타나는, 죽음에 대해 스스로가 응답하는 과정으로 시작해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운동의 과정들을 살펴봄으로써 유가족 운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 이소선과 유가협

6) 위의 책, 198-199쪽.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 2. 이소선의 운동

### 1) 이소선 운동의 시작, 장례투쟁

이소선의 ‘운동’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현재의 유가족 운동의 범주를 넘어선다. 유가족들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과 같은 형태로 자식들의 죽음을 둘러싼 규명작업과 명예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자식들의 죽음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이소선 어머니는 처음부터 전태일 열사가 수행하고자 했던 운동을 마치 ‘이전부터 준비된 듯이’ 이어갔다. 청계피복 노동조합을 전태일의 친구들과 함께 건설하고 노동자들을 직접적으로 조직하는 활동하는 것을 포함해 70년대 당시 노동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으로서의 ‘당사자 운동’의 범주를 뛰어넘어 하나의 운동주체로 실천한다.

“어머니는 자기 실천과정 속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뛰어넘었다. 처음에는 청계피복 노조 만들면서 노동자들 뒷바라지를 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가령 구사대에 맞아 죽은 김진수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도 달려갔다. 초반의 활동들을 보면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거침없이 간다. 초반부터 누가 권유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연대활동을 해가는 거다. 다른 유가족들이 초반부터 하기가 어려운데, 어머니는 그게 달랐다. 유가족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운동하기가 대체로 쉽지 않다. 자기가 당한 아픔이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같이 하기가 힘들다.”(박래군, 유가협 전 사무국장)<sup>7)</sup>

‘이소선의 운동’의 출발점은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라는 ‘준비된 죽음’, 즉 ‘분신’을 통해 단절된 소통<sup>8)</sup>을 새롭게 개시하기 위한 최종적인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시작된다.

전태일은 죽음 전, 어머니에게 미리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시위 현장에 오라고 여러차례 권유한다. 자신의 청계피복 친구들과 함께 어머니를 자신을 대신한 행위의 주체로 상정한 것이다.

---

7) 2021. 8.3. 인터뷰

8) “전태일을 비롯하여 정치목표를 내세운 자살에는 ‘최종적인 소통의 포기’로서만, 마음속의 요구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는...하나의 연약한 목소리가 권력자에 다가가는 대화’라는 해석이 오히려 정곡을 찌르는 것으로 생각된다.”(《열사의 탄생》, 136쪽)

1970년 11월 13일, 분신 소식을 전한 전태일의 친구 ‘영문이’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이소선은 택시가 아니라 버스를 타고 전태일이 누워있는 병원을 향한다. 택시를 보내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가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서 다른 차로 갈아타며 전태일의 죽음을 대면하는 것을 지연한다. 이소선은 후에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버스를 탔다고 회고했다.

“현장에서 내가 태일이 봐 버리면 생각할 여력도 없이 기절하고 만다. 그러면 안 된다. 내 혼자 생각에 태일이는 갔지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라고 내가 택시를 안 탔는데...”<sup>9)</sup>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소선은 전태일과 마지막 대화를 이어간다. 그리고 이는 이소선 운동의 원칙과 방향을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좁쌀만한 구멍’을 내는데 자신의 죽음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어머니에게 그 구멍을 조금씩 넓혀야 한다는 책임을 직접적으로 전한다. 이는 유가족으로서 이소선 어머니가 유서를 통한 죽음의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 유서조차 없는 의문의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을 대신해 전태일이 생각하는 운동을 이어가야 할 주체로서 호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학생들하고 노동자들하고 합해서 싸워야지 따로따로하면 절대로 안돼요. 캄캄한 암흑 속에서 연약한 시다들이 배가 고프데, 이 암흑 속에서 일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좀 더 가면 전부 결핵 환자가 되고, 눈도 병신 되고, 육신도 제대로 살아남지 못하게 돼요. 이걸 보다가 나는 못 견뎌서, 해보려고 해도 안 되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좁쌀만한 구멍이라도 캄캄한데 뚫리면, 그걸 보고 학생하고 노동자하고 같이 끝까지 싸워서 구멍을 조금씩 넓혀서 그 연약한 노동자들이 자기 할 일을,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엄마가 만들어야 해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유혹에도 타협하지 마세요. 내 부탁한 거 꼭 들어주시겠죠?”

“엄마, 엄마, 내가 부탁하는 거 꼭 들어주겠다고 크게 한번 대답해 줘.”

“엄마, 배가 고프다...”<sup>10)</sup>

9) 오도엽,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 이소선 여든의 기억>, 2011, 후마니타스, 81쪽.

10) 위의 책, 84-85쪽.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이소선은 전태일이 분신하면서 요구한 여덟 개 조항이 해결되기 전에는 장례식을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한다. 정부는 장례를 조용히 치르기 위해 목사를 내세워 회유하고, ‘평생 구경도 해보지 못할 어마어마한 돈다발’을 들고 이소선을 찾아가 하면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이소선을 강제로 납치하기까지 했다.

“제일 놀라운 것은 전태일 동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죄인처럼 얼굴을 들 수 없는 통념이 있던 시기였는데요. 그런데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들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결단을 하고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어머니는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청계피복노조 조합원 이숙희)<sup>11)</sup>”

결국 당시 이승택 노동청장이 나서서 ‘영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노조가 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시인했고, 노조 결성을 적극 돕겠다는 협조를 받아냈다. 근로감독관 세 명도 해임되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16인 이상 고용업체까지 확대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때 내리는 벌칙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태일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겠다는 합의서를 받은 후에야 장례식은 치러질 수 있었다.

‘이소선 운동’의 처음은 장례투쟁이었다. 이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죄인처럼 얼굴을 들 수 없는 통념’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장례투쟁은 전태일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즉 전태일이 죽음을 통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이소선의 목소리와 행위를 통해 죽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되묻는 과정이었다.

### 2) 이소선의 노동운동

전태일이 분신한지 2주 후, 11월 27일에 청계피복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 이소선이 ‘노동운동가’라고 불려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활동이 ‘전태일의 어머니’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당시 노동운동이 발전하지 않는 초창기적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이소선 어머니는 첫째,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건설과 조직, 그리고 정권의 탄압에 의해 불법화된 청계피복노동조합의 재건 및 합법성 쟁취를 위한 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둘째, 청계피복노동조합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현장에 달려가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벌였다. 셋째, 노동조합의 합법화와 민주노총이 건설된 후에도

11) 전태일기념관, <이소선의 기억과 기록-2021 전태일노동구술기록3>, 2021.

비정규직 문제에 노동조합이 연대해야함을 강조하면서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넘어서 노동운동이 견지해야할 시대적인 활동방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소선 운동에서 노동운동이 갖는 위치는 70년대와 80년대라는 시대적 조건을 뛰어넘어 ‘전태일 정신’의 당대성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었다.



▲ 청계피복 여성노동자들과 설날 기념으로 찍은 사진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 <이소선의 노동운동 : 1970~1985년까지>

- 1970년 11월 27일 청계피복노동조합 결성.
- 1971년 동화시장 후생식당에서 노동자를 위해 국수 삶아 주는 일을 함.
- 1975년 근로시간 단축농성, 1976년 시다 임금 직불제 농성.
- 1976년 4월 16일 노동교실 실장
- 1976년 7월 25일 동일방직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연대투쟁.
- 1979년 8월 11일 YH노동자 신민당사 농성투쟁에 연대
- 1980년 청계노조 임금인상 투쟁을 하며 대학교에 초청되어 반독재민주화 투쟁 강연
-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으로 수배
- 1980년 10월 30일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 수감되어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해 12월 12일 형 집행면제로 석방
- 1981년 1월 30일 계엄당국에 의해 해산된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복구를 위해 벌인 아프리 사무실 점거농성 사건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계엄법 위반으로 2월 9일 구속 수감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옥고 치음
- 1984년 4월 8일 청계피복노동조합 복구 후 노동조합 고문을 맡음.
- 1985년 9월부터 청계노조 합법성 쟁취 대회를 학생들과 연대하여 동대문 일대에서 거리시위 등 전개.

## 가. 이소선 노동운동의 방향 - '공간'과 노동운동의 주체화

이소선 운동에서 일관되게 등장하는 것은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공간'의 중요성이다. 이소선 어머니는 유가협이 공간 '한울삶'과 함께 노동조합의 공간, 노동교육과 소모임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는 새로운 주체화 전략을 위한 거점이었으며,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직화의 장소였다.

청계피복 노동조합운동 초기에는 노동조합 사무실 뿐만 아니라 이소선 어머니의 집이 전태일 친구들의 '아지트'였다. 여기에서 친구들과 어머니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토론을 했고, 새로 조직된 여성노동자들도 이소선 어머니의 집에 모여 들었다.

전태일과 함께 삼동친목회를 만든 친구들을 비롯해 몇몇은 아예 이소선 어머니 집이 있는 쌍문동 집으로 이사를 했다.

특히 '노동교실'은 청계피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교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다.

을지로 6가 유림빌딩에 노동자가 운영하는 노동교실에서는 정기교육 뿐만 아니라 조합의 각종 회의, 소모임, 일반 조합원 회합, 행사와 기념식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5월 한달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사용한 회수가 총 142회, 연인원 3,000명이 넘었다. 비좁은 노조 사무실에서 할 수 없던 많은 일들이 노동 교실에서 이뤄지면서 조합은 한결 활성화 되었다.

### - <청계, 내 청춘>

노동교실에서 이소선은 교육실장을 맡았다.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교육하는데 이소선의 역할을 매우 중요했다. 남성노동자와 남성 지식인들이 조직과 교육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청계피복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를 조직하고 이들을 교육하는 데 여성이자 어머니, 그리고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는 이소선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전태일 분신 이후 결성된 청계노조는 전태일의 친구를 비롯해 몇몇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유정숙의 진술대로 청계피복노조는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전태일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한 소수가 조직되어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청계피복노조 설립신고서가 나왔고, 이후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수순을 밟았다. 사회적으로 충격을 가져다 준 전태일의 분신이지만, 정작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청계피복노동자들에게는 그저 소문으로만 분신 소식이 들려왔을 뿐이다.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그 사건 당시에 저는 미싱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건이 일어났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 보니까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일하기 싫은 사람, 깡패 같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유정숙)<sup>12)</sup>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 과정에서 이소선은 매우 적극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했다. 청계피복 옥상에 위치한 노조사무실에 찾아오거나, 옥상에 ‘잠시 숨을 쉬러’들른 여성노동자들의 손을 덥씩 잡으면서 노동조합에 여성노동자가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노조 가입을 권유했다.

“1971년도 초에 전태일 열사 친구분들을 중심으로 노조 활동을 했는데요. 평화시장에 일하는 사람의 85퍼센트가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남자들만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부녀부장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평화시장 옥상에 있던 노조 사무실에 방문했어요. 어머니를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여성 활동가가 필요하다’라고 하었어요. 그때 어머니를 처음 뵈었는데요. 오랫동안 알던 사이처럼 가깝게 느껴지고 굉장히 벅했어요.”(정인숙)<sup>13)</sup>

“‘아가씨 같은 사람이 여기 많이 와야 합니다. 많은 노동자가 있어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찾아와 줘서 고맙다’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노동운동이 무엇인지,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무언가 자꾸 궁금해졌어요. 그날은 첫날이니깐 잠시 이야기하고는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왔어요.”(유정숙)

70년대 독재정권하에서 노동운동을 한다는 것, 87년 노동자대투쟁이 일어나고 이후 노동조합이 확산되는 시기까지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을 주체로 형성하는 문제가 중요했다. 이소선 어머니는 당시 문익환, 장기표 등의 재야 지식인 운동과의 관계가 형성되었지만 이들 재야운동과는 다른 노동조합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리고 이는 청계피복 노조의 서노련 활동에 대한 반대입장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노동자 속에 노동조합이 있어야지, 몇몇 운동가끼리 모여 어떻게 노는 운동을 하냐, 서노련을 탈퇴하고, 노동자 속에 들어가 노동조합을 튼튼히 꾸려, 그 힘으로 노동운동도 하고 정치운동도 해야 옳지않냐. 나한테 조합주의다, 경제주의다, 욕을 해도 좋다. 하지만 노동자가 따라갈 수 없는 노동운동이 말이 되냐, 나는 노동조합하면서도 독재랑 싸웠다.”<sup>14)</sup>

12) 위의 책, 122쪽.

13) 전태일기념관, 위의 책, 119쪽.

14) 오도엽, 위의 책, 218쪽.

노동조합 운동의 초기적 조건에서 주체를 발굴하고 형성하는데 집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이소선의 관심은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다. 이는 민주노총이 만들어진 이후 이소선의 마지막까지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다.

“이제 바라는게 있다면...청계노조 사무실이랑 여기 기념사업회 집이랑 다 함께 모아서 집을 하나 만들었으면 해. 어디 돈 받거나 남들한테 돈 모으지 말고, 우리 것 팔아서 자료실도 만들고 기념관도 만들고 사무실도 쓰고 할 수 있는 집 말이다. 내가 없어도 사라지지 않게 집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는 야무지고 단단한 노동자의 집”<sup>15)</sup>

“야무지고 단단한 노동자의 집”은 쌍문동 208번지 자신의 집으로부터 출발해, 청계노조 사무실, 노동교실, 유가족들의 ‘한울삶’, ‘평화의 집’으로 이어지면서 형성된 기획이다. 정권의 탄압이나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공간, 노동자들의 소통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은 주체적인 노동자 활동의 거점이자, 노동자들의 집합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 나. 이소선 노동운동의 원칙 - 연대

이소선 운동의 가장 큰 원칙은 ‘연대’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통큰 단결’과 같은 통합과는 다른 것이다. ‘단결’은 연대를 통한 것이어야 하며, 연대는 당대에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주체화되는 과정에서 기존 노동운동이 결합해야한다는 방향성을 포함한다.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힘을 합쳐야 해. 비정규직이 70년대로 따지면 시다 아니냐. 민주노총은 가장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해야지 않냐.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민주노총도 아니다.”

“정규직이 노동귀족이 되어서는 안 돼. 정규직이 나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싸워야 해결되는 거야. 몇 천만원 연봉 받는다고 노동귀족 행세하다가 금방 쪽박차고 비정규 신세 되고 마는 걸 알아야 해”<sup>16)</sup>

15) 오도엽, 위의 책, 284쪽.

16) 오도엽, 위의 책, 280-281쪽.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이러한 ‘연대’는 차이를 제거한 ‘통 큰 단결’이나 위로부터의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운동의 주체가 당대의 노동운동의 중심이 되기 위한 연대, 그리고 이를 위해 노동 내부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노동운동의 합법화와 양적인 확장, 그리고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안착(?)을 넘어 현실적인 ‘노동자의 삶’이 민주화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현실인식이 자리한다.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나아질 것 같았지만 더 힘든 시기가 오니까, 비정규직이라든지. 어머니가 계속 거리로 나오셔서 다시 싸우는 거예요.”(이형숙)<sup>17)</sup>



▲ 기륭 천일투쟁 현장에서 이소선

17) 전태일기념관, 위의 책.

기륭 여성노동자들, 쌍용자동차 투쟁, 부산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 투쟁 등 신자유주의 이후 구조조정에 내몰리거나 비정규직으로 배제된 노동자들의 문제는 이소선에게 ‘70년대 어린 시다’의 문제였다. 이들이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는 노동운동은 이소선 운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소선에게 소외된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독재정권이 몰락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진전된 민주주의에 안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이자 이소선 운동의 동력이기도 하다. 이소선에게 노동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진전된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갖는다. 즉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처지는 왜 달라지지 않는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왜 심화되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소선이 간직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기본이념, ‘70년대 여성 시다’들의 존재는 경제적 민주화가 빠진 87년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를 짚는다. 그 한계에 대한 인식 하에 이소선의 노동운동이 지속되었다.

애초에 이소선에게 독재정권의 몰락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도래가 아니었다. 6월 민주항쟁이후 사회적으로는 독재정권이 끝나고 민주주의가 도래한 것처럼 들떠 있을 때, 이소선 어머니는 거제도 대우조선 이석규 노동자가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현장에 달려갔다. 그 속에서 깨달은 것은 “민주주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이었다.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 3. 이소선과 유가협의 운동

1986년 8월 12일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유가협)가 창립되고 초대 회장으로 이소선 어머니가 선출되었다.

노동운동으로 시작한 이소선의 운동은 80년대 들어 민중운동으로 활동이 넓어졌다. 70년대는 많은 열사들이 없었다. 당시 인혁당 가족들이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빨갱이’로 몰려 운동사회 내부에서도 배척당하는 상황이었다. 5·18 유가족들도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억눌려 있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유가족들도 사회적으로 호명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87년 6월항쟁이 큰 계기였다. 박종철 아버지 조차도 경찰의 압박에 시신을 강가에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는 이한열 열사의 죽음이었다. 이한열의 죽음을 계기로 열사와전사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열사에 대한 의례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운동 내부에서는 ‘열사의 정신계승’이 정세적인 요구와 결합하면서 운동사회가 유가족을 호출하기 시작했다.<sup>18)</sup> 다른 한편으로는 수배 중이거나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실종되거나 의문사한 경우들이 많았다.

유가협이 발간한 소식지 ‘한울삶’ 1호에 실린 유가협의 창립배경은 이러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70년 전태일씨가 분신한 이래 80년 광주항쟁을 지나면서 열사와 희생자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80년 광주항쟁을 지나면서 일시적인 침체현상을 보이던 운동 세력들이 5공의 악랄한 탄압을 극복하고, 억압과 착취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억압과 착취를 물리치기 위한 운동이 급속도로 발전한 게 80년대의 운동이었습니다. 운동이 발전하면서 정권의 물리적 탄압은 가속화되고 이를 깨트리기 위한 극한적인 투쟁들이 전개되었습니다. 80년대 초기에는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분신 투쟁이 줄을 이었고, 80년대 중반부터는 노동자, 농민들 속에서도 분신투쟁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열사와 희생자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유가족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가족들은 고인의 뜻을 알리고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투쟁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유가협, 〈한울삶 1호〉, ‘유가협의 창립배경’)

18) 이상 박래군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정리함.

제 1 7 호 (송년호)

# 한울삶



<유가협과 후원회의 정기총회 모습>

발행일 : 통일염원 47년 12월 20일      주소 : 서울 종로구 창신2동  
발행인 : 이소선      문익환      651-30      3동 1반  
편집 : 『한울삶』 편집부      전화 : (02) 764-1684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후원회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유가족들은 “자식이 왜 죽었는지조차 몰라 망연자실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자식을 욕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중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송광영 어머니는 이소선에게 “우리가 나서서 자식들이 왜 항거했는지도 알려 주고 낙심한 유족들을 위로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라며 유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이소선은 당시 학생과 노동자들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죽음으로 항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괴로움에 시달려야 했다.

“전태일 평전이 더 많은 사람의 가슴에 불쏘시개가 되어 불을 지피지 않을까, 두려움이 밀려 들었다. ‘더 이상 젊은이들이 소중한 목숨을 바치며 싸우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살아서 싸워야 하는데...’<sup>19)</sup>

전태일과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가족협의회는 만들어져야 했다. 이로부터 유가족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 1) 운동집단으로서의 유가협

#### 가. 사회적 타살이라는 죽음의 규정

유가협은 자식들의 죽음을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며, 죽음의 배후에 있는 ‘사회적인 억압구조’를 지목한다.

“우리는 혈육을 잃음에 있어 사회적인 억압구조-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반인간적 사회구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혈육들은 외세와 대항해서 독재정권과 맞서서 또는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목살하는 체제의 폭력에 의해 희생되었던 것입니다.”(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소식지 ‘한울삶 1호)

유가협은 당시의 정권이 사회적 죽음을 사적인 것으로 개인화하고, ‘자식 잡아먹은 부모’라는 도덕적 비난과 정치적인 행위를 금기시하는 ‘빨갱이’운운과 같은 지배적인 규범에 정면으로 대항한다. 이로써 죽음의 책임을 정치적인 것으로 되돌리려는 집합적인 행위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19) 오도엽, 위의 책, 201쪽.



▲ 유가협 현판식

“대한민국은 시위하다 죽으면 중북이라고 해요. 그런 게 괴롭죠. 이 땅에 살고 싶지를 않았어. 떠나 붙고 싶고. 근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고는 있는데 대한민국이 참 더러운 땅이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류성열)<sup>20)</sup>

20) 송기억·정윤영 기록, 위의 책, 125쪽.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80년대 당시의 운동은 사회주의, 민족주의와 같은 이념적 언어들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학생운동이나 지식인 중심의 운동으로 표상된다. 노동운동의 언어 역시도 이러한 이념적인 언어가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 운동은 소수의 지식인 엘리트들이 자신의 이념을 쫓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었다.

즉 자신들의 일상에서 행해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과 운동권에게 가해자는 정권의 폭압적인 탄압이 단절적으로 이해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 운동’은 소수 엘리트들의 이념 투쟁이라는 규정 아래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감정의 차원을 드러내게 된다. ‘불의의 죽음으로 자식을 잃은 가족의 고통’이라는 보편적인 감정 구조를 건드리는 것이었다.

이는 운동 내부에 있어서는 ‘열사정신 계승’이라는 이념의 결집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타살’을 규정하는 유가족들의 행위에 일정한 정당성이 부여되면서 유가족들이 시위의 전면에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된다.

### 나. ‘자책’: 유가족들의 감정 구조

그러나 ‘사회적 죽음’이라는 규정이 유가족들의 ‘자책’을 상쇄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유가족들의 행위와 실천을 추동하는 근본적인 감정은 ‘자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식이 사회적으로 타살 당했다는 ‘피해자로서의 감정’이나 자식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는 ‘가해자로서의 감정’으로 환원되지 않는 매우 독특한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열사’의 경우, 남겨진 가족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한 부단한 질문의 과정을 포함한다.

유가협은 개별화된 자책의 감정 즉 지배적인 규범이 자식의 죽음을 남겨진 가족들의 탓으로 돌리는 자책에서 벗어나는 계기이자, 또 다른 자책, 집합적이고 사회적인 자책의 감정을 형성하는 조직적인 매개가 된다. 이는 죽음을 선택한 자식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그 동안 자신들이 자식들의 운동을 반대한 것에 대한 뒤늦은 후회<sup>21)</sup>로부터 사회에 무관심해온 것에 대한 자책으로 이어지고, 자식들을 대신해 민주화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힘이 약해 죽음의 진상규명과

21) “내가 재율이 시위 못하게 한다고 두들겨 패부렸어. 나한테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그라고 이틀 뒤에 나가서 죽어버렸으니 내가 얼마나 목이 메이겠어.”(류성열), 125쪽.

명예회복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자책으로 이어진다.<sup>22)</sup> 이 자책은 유가족들이 집단적으로 형성해낸 ‘사회적 책임’의 다른 이름이자, 감정적 표현이다.

“유가족들은 유가협에 와서 내 자식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다. 자식의 운동이나 문제의식을 끊임없이 이해하려는 과정이다. 유가족들은 끊임없이 죽은 자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 친구들에게, 주변 동료들에게 들으면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

“아들 죽고 나서 우리가 진상규명 싸움하면서 느낀 게 있어. 정치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이 결국은 우리 아들들을 죽게 만든 것 아닌가 하고 말이야.”(최봉규, 최우혁의 아버지)<sup>23)</sup>

#### 다. 유가족의 인식 변화

그리고 이러한 ‘자책’은 유가족들로 하여금 과거에 대한 후회와 죽음에 대한 이해를 넘어 죽음을 통해 전달하려고 했던 사회적 모순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까지 이어진다. 박종철의 아버지 박정기님은 박종철이 공부한 책을 찾아서 공부를 하며 “스물세살의 철이는 세상의 한 가운데서 무엇을 꿈꾸었을까? 나는 그 답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물음을 품는다. <전태일 평전>을 읽으며 ‘막내(박종철)는 전태일의 죽음을 고민하고, 그와 같은 투쟁을 하며 살고 싶었던 아이였다’는 회고와 함께 자신 역시도 전태일의 죽음을 고민하고 그와 같은 투쟁을 하는 삶으로 전환한다.

유가족들에게 자식을 잃은 ‘슬픔’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슬픔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지속된다. 유가협을 통해 유가족들은 자식들의 선택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서로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학습을 하며 자식에 대한 이해로부터 사회운동에 대한 참여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자식의 뜻’에서 ‘자신의 삶과 운동’으로 전환하게 된다.

“아들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놓아 주었다. 나는 고문 없는 세상,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평생을 바쳐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볼 때가 제일 좋다.”(박정기, 박종철 아버지)<sup>24)</sup>

22) “법이 있으면 뭐해. 해결은 안 해주고 우리를 종북 만들고 주변 조사하니까 성질이 나지. 억울한 거여. 부모 능력이 부족해서 자식 죽음을 해결 못하고 있는데 그건 내 죄야.”(류성열) 125쪽.

23) 송기역·정윤영 기록, 위의 책, 193쪽.

24) 송기역·정윤영 기록, 위의 책, 32쪽.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가족들은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투쟁, 노동현장의 임금인상 투쟁 등 투쟁의 현장에는 맨 앞에서 ‘자식들을 지키는 일’을 지속하게 된다.

### 2) 이소선과 유가협

이소선 어머니는 유가협 활동에서 무엇보다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독이는 역할을 했다. 지금으로 보면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서로의 끝이 없는 이야기를 말하고, 듣고, 화투를 치며 놀고, 함께 학습도 하면서, 투쟁을 모의하고, 데모를 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삶을 일구어 나갔다.

“한울삶은 우리 집이요. 덕수 집도 되고 내 집도 되고. 서울 가면 먹고 살데 있응께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른데는 못 찾아도 거기는 시방 눈 감고도 찾아가. 나는 지금도 만날 한울삶 가자고 그래.”(고순임)<sup>25)</sup>

“이소선 어머니, 종철 아버지한테 세상 사는 법도 배우고 지혜를 많이 배웠어요. 참 도움이 많이 됐어. 이소선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운동하던 분이래 경험도 많으시고, 제일 보고 싶은 분이예요. 참 좋아했죠. 저도 아내도.”(김상모)<sup>26)</sup>

이소선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유가협 활동을 하면서 ‘의문사유가족대책위’ 가족들과 함께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135일간의 농성을 전개했다. 애초에 유가협 내부에서는 의문사 유가족들을 유가협 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냐의 논란이 있었으나 135일 농성의 과정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의문사는 민주화 운동과의 관련성 보다는 ‘공권력에 의한 타살’로 의문사를 규정했으며, 유가협도 4차 총회를 통해 회원자격을 “외세와 독재에 의해 희생당한 유가족은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의문사유가족들을 유가협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문제는 1999년 의문사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죽음’으로 의문사를 축소되면서 일반 의문사가 배제되어 버린다.

또 하나는 한울삶이라는 ‘공간’의 마련이다. 유가협의 이름으로는 제대로 된 공간을 구하지도 못하는 시대였다. 이소선 어머니와 박정기 아버님 등을 중심으로 서화전을 통해 공간마련 기금을 모금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울삶’이라는 공간을 마련했다. 유가족들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공간은 이후 유가족들의 운동을 위한 공간 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중심으로 상호간의 유대와 치유를 위한 관계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기존의 사회질서를

25) 송기역·정윤영 기록, 위의 책, 92쪽.

26) 송기역·정윤영 기록, 위의 책, 96쪽.

재구조화할 정치적 행위자로서 서로를 참조하며 구축된 ‘대항적 친밀권(counter intimate sphere)’의 한 행태로 이해할 수 있다.

“유가족들이 친밀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동료상담과 같은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박래균)

김명희(2016)는 사이토 준이치의 개념을 빌어 친밀한 연대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친밀권은 곧 공공권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현대에서 창출되는 공공권의 대부분은 친밀권이 전환되어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유가협을 통해 형성된 친밀권은 개별적인 가족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적인 확장으로, 사회적 변화를 추동할 정치적 잠재력을 형성한다.

실제로 유족들은 ‘한울삶’에서의 소통과 공감의 서로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음과 동시에, 422일 국회앞 농성이나 국가에 대항해온 투쟁의 기억들을 가장 ‘명예롭고, 즐거우며, 자부심을 갖는’행위들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는 단지 심리적인 치유의 과정이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넘어서 새로운 정치적 행위를 통한 능동적인 사회적 활동에 따른 ‘명예의 회복’이자 사회적 인정의 과정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유가족 운동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4. 오월 어머니회 : 5·18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어떤 모델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5·18구속자가족회'가 결성된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정부군에 의한 수많은 사상자와 구속자가 발생하고 관련 재판이 시작되면서 5·18유족회, 5·18부상자회 등 여러 단체가 결성되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의 활동이 진행되었다.

그 중 5·18구속자가족회는 2000년 오월여성회(현 오월어머니회)로 전환되는데, 오월 어머니회 구성원의 대다수는 5월 항쟁에서 사망과 부상 또는 구속된 피해자의 가족들이며, 일부는 본인이 직접 5월 항쟁에 참여한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월어머니회는 2006년 광주광역시 양림동에 '오월어머니집'을 마련한다.<sup>27)</sup> 상주할 공간을 마련한 오월어머니회 회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기 시작하는데, 5월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사업, 오월어머니상 시상사업, 민족화해를 위한 국내외 운동 단체들과의 교류사업,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회원들의 심신을 치유하는 어머니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오월어머니들의 삶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국가 폭력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채 고립적인 삶을 이어갔던 어머니들이 오월어머니집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변화는 시작되었다.

오월어머니회는 인권NGO로 출발했으나 교육 및 재활센터로서의 복합적인 기능도 보유한 다목적 인권센터로 거듭나게 된다. 오월어머니집의 개소 이후 이 공간은 국내 및 국제인권교류의 장이자 아시아 인권레짐의 허브로 급격히 성장하게 된다. 이는 2011년 5·18운동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노무현 정부당시 광주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건설하는 대단위 정책사업이 진행되면서 오월어머니집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게 된다.

오월어머니회는 5·18운동을 광주의 아픈 기억으로 남겨놓는 대신 5·18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광주라는 도시의 특성으로 인권을 내세우는 지방정부의 전략하에 배치된다. 이러한 '제도화'과정은 그 자체로 운동성의 상실과 5·18의 국가화로 수렴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오월어머니회의 운동은 앞서 유가협이 운동과는 다른 맥락에서 사회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밀양 송전탑 투쟁이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면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지속하고 있으며, 광주정신을 인권의 차원에서 보다 보편적인 정신으로 확장하려고 시도하는 여성인권NGO로서 자신의 위치를 성정하고 있다.

27) 오월어머니회 활동에 대해서는 노영숙, "오월어머니집 형성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을 참조하였다.

5·18은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둘러싼 역사적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5·18이 합법화되고, 1997년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광주항쟁은 제도적으로 복권되었지만, 그 대가로 5·18은 항쟁에서 민주화운동으로 퇴색하게 된다. 김정한(2021)은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명명이 퇴색했다고 평가하는데, 그 이유로 “5·18에 담겨진 저항적 상징성이 현재형이나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변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라면, 독재 정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저항이 준거하는 상징적 원천으로 작동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더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존의 ‘민주-반민주’구도가 약화되고 ‘신자유주의-반신자유주의’대립이 부상하는 정치 지형에서 ‘민주-반민주’구도에 의존하는 5·18의 저항성은 현저히 희미해진다.”<sup>28)</sup>

따라서 5·18 유가족의 운동은 ‘제도화’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과제, 그리고 5·18 민중 항쟁의 저항성을 새롭게 복원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오월어머니회의 사례처럼 보다 보편적인 인권의제 중심으로 5·18의 정신의 일반성을 확장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제도적인 틀에 갇혀 ‘국가적 행사’로 퇴색될 것인지를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책임과 행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18 항쟁이 한국사회에서 끼친 영향을 매우 지대하기 때문에 유가족 운동의 차원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5·18의 정신을 계승하고 재활성화하는 문제는 유가족 뿐만 아니라 현시기 사회운동진영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행위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28) 김정한, 〈1980 대중 봉기의 민주주의〉, 2021, 후마니타스, 38쪽.

### 5. 민주화운동 유가족에서 재난참사 유가족으로 : ‘세월호 참사’유가족

김영삼 ‘문민정부’의 출현과 민주-반민주 구도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이후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로 탄생한 김대중 정권에서는 이전과 같은 민주화운동의 차원에서 ‘열사’가 출현하지 않게 된다. 더 이상 학생열사는 나오지 않았으며 노동자와 농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sup>29)</sup> 최초의 여야정권교체로 탄생한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수용한 정부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열사로 호명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자살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유가협의 활동도 위축되기 시작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참사가 발생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되자마자 발생한 참사였다. 대구지하철참사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용절감(불쏘시개 저가 전동차)과 1인 승무와 같은 안전인력의 축소가 원인으로 지적되었지만 보다 넓게는 한국사회에서 재난참사는 지진, 해일 등과 같이 자연적인 재난으로 간주되어 불운의 차원에서 수습되었던 오래된 무능의 역사의 축적된 결과였다.

대구지하철 유가족들은 ‘희생자대책위’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라는 사회적 의제를 상정한 최초의 재난참사 유가족이었다. 그러나 대구라는 지방에서 일어난 참사는 전국화되지 못한 채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너무 빨리 잊혀졌다. 이와 함께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운동도 고립된 채 지난한 활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대구지하철참사 당시에 지역 운동단체들이 결합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을 뿐, 운동사회가 사회적 참사에 대한 문제에 전면적으로 결합한 것은 ‘세월호 참사’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과거 민주화운동유가족이 기존 운동세력과 결합하는 양상과는 사뭇 달랐다.

“예전 유가족들은 사회적 문제에 어두웠다. 자식들의 죽음이 갑자기 닥친 상황에서 운동사회가 제시한 방향을 따랐다.”(박래균, 전 유가협 사무국장) 민주화운동유가족에게 운동사회는 자식의 친구이자 동료였으며, 자신이 지향하는 이념을 공유하는 ‘동지’였다. 즉 민주화운동유가족에게 운동사회는 자식의 이념을 공유하는, 자신이 그 이념을 수용해야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운동사회가 이끄는 방향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다.

29) 임미리, 〈열사, 분노와 슬픔의 정치학〉, 2017, 오월의 봄, 291쪽,

그러나 재난참사 유가족의 경우 운동사회와 연결될 특정한 이념이 없었다. 이념을 대체할 매개체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운동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사회적 참사를 운동의제로 상정하고 실천한 적이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과 신뢰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유가족들에게 ‘운동집단’은 알 수 없는 집단이기에 신뢰할 수 없는 세력이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처음에 운동사회와 결합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만들고 안산까지 쫓아가서 유가족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처음에는 번번이 거절당했다. 팽목항에 있다가 안산에 올라온 유가족들은 대책회의를 통해 방향성을 설정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회의가 안 될 정도였다. 서로 감정토로하고, 난상 토론이 이어지는 와중에 운동의 방향을 설정해간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안전사회 건설’이라고 운동 방향을 설정한 것은 운동사회가 아니라 유가족들이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 서명운동을 유가족들이 먼저 시작하게 된다. 이걸 받아서 국민대책회의가 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도 국민대책회의를 받아들리게 된다. 우리도 유가족을 끌고 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유가족들을 중심에 세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박래군)

2014년 4월 19일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로 가겠다며 진도대교로 행진하다가 가로막힌 과정에서 처음에 ‘국가를 믿었던’ 가족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구조실패로 이어지는 국가에 대한 배신과 이후 끊임없이 기만당하는 과정<sup>30)</sup>에서 가족들은 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구조실패의 문제로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운동과 유가족들이 결합하게 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시민들의 결합이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형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전의 유가족 운동과는 다른 양상으로 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과 행위의 결집이 이뤄졌다.

30) 참사 당시 공권력이 집결한 곳은 구조현장이 아니라 진도체육관과 팽목항, 안산 합동분향소, 그리고 장례식장이었다. 이곳에 모여든 공권력은 피해자 가족들과 추모 시민들을 미행하고 사찰했다. 방통위에 의한 언론보도에 대한 통제도 이뤄졌다. 언론의 의혹제기는 ‘오보’로 판단, 통제하겠다는 발상이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SNS 단속을 지시했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 정부부처는 SNS에서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려고 시도했다. 전국적으로 천여명의 경찰이 시민들의 사이버활동을 감시했다. 2015년 세월호 참사 1주기 즈음에 열린 집회에서 경찰은 참여자들에게 캡사이신 분사액과 물대포를 난사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 근현대사 7장 재난과 인권운동에서 발췌.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유가족들을 둘러싼 혐오발언이 확산되고 있었다. 초기에 유가족들의 슬픔에 애도를 표하고 공감하던 여론은 장례식이 끝나고서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행위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재난참사의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재난서사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유가족들의 운동은 일반시민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동안 운동사회에서 사회적 참사를 사회적인 운동 의제로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국가에서도 재난참사 피해를 ‘수습과 국민성금모금을 통한 보상’차원에서 종결해오면서 이전과는 다른 유가족들의 모습에 대해 갖은 혐오발언들이 쏟아졌고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이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이에 더해 정부여당(당시 새누리당)은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라는 식의 유언비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면서, 세월호참사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종결하려는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혐오발언들이 공공연하게 유포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5·18오월어머니회 유가족들,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의 유가족들을 만난다. 오월어머니회 유가족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대한 깊은 공감을,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또 다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세월호 유가족에게 사죄했다.

세월호 유가족들 역시 참사 이전 자신이 사회문제에 무관심 했던 것에 대한 자책이 이어졌다.

“내가 5·18진실을 알고 행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희생된 것 같고 더 미안하고 죄책감이 더 들거든요.”<sup>31)</sup>

“내가 피해자 엄마지만 간접적인 가해자잖아. 어른인데, 대한문국의 문제를 묵인했던 거예요.”<sup>32)</sup>

31) 4·16기억저장소 홈페이지. 김명희, ‘국가에 대항하는 가족 : 세월호 연대의 감정동학과 루트 패러다임’에서 재인용.

32) 해정,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적 애도와 4·16운동’에서 재인용.

이러한 자책의 구조는 이소선과 유가협 가족들의 감정 구조와 다르지 않다. 자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의 무능력과 구조실패, 진상규명의 문제를 둘러싼 싸움이 전개되는 과정과 함께 지속되며, 진상규명이 어려워질수록 자책의 강도는 더 높아지기도 한다.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의 무게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란 옷을 입은 세월호 유가족은 이소선과 유가협이 투쟁의 현장에 결합했던 것처럼 백남기 농민 사망사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등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과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를 둘러싼 싸움의 현장에 가장 먼저 나타나 유가족과의 연대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활동가로 성장하는 거 같다. 백남기 농민 때도 마치 내일처럼 결합했다. 그 뒤에 산재사망 노동자들에게도 내일처럼 쫓아갔다. 그렇다고 세월호 유가족 전체가 그렇게 활동하지는 않는다. 그런 분들은 전체 세월호 유가족들 중의 일부이다. 그러다보니 활동하는 유가족과 활동하지 않는 유가족 사이에 인식차이가 발생한다. 가족협의회 회원인 유가족들의 인식이 같이 높아져야 하는데, 활동에 나서지 않는 유가족들은 ‘우리 진상규명하는 것도 바쁜데 왜 다른 곳에 결합하냐’며 연대활동을 하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런 인식의 불일치는 유가족 활동에 제약조건이 된다.”(박래균)

유가족들간의 인식차이, 판단차이는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유가족의 경우 자식들의 직접적인 유언을 통해, 때로는 직접적인 유언보다 더 직접적인 국가 폭력과 죽음의 은폐를 통해, 죽음의 의미를 추적하고 자식(혹은 가족)의 유지를 수용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참사 유가족의 경우 유가족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필연성이 약화된 것은 미세한 차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이다. 이로부터 참사 유가족들의 간극은 매우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온전히 유가족 운동이 ‘선택’내지는 ‘의지’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준다. 유가족들은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서 유가족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기도 하고, 그 앞에서 국가와 이웃과 친척의 얼굴을 한 지배적인 권력 앞에 좌절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소선과 유가협의 헌신적인 투쟁을 바라보며 이러한 사실을 망각할 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협 조차, 자신들 앞에 놓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단지 모이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했다.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유가협은 초기에 자체적인 공부를 진행하면서 사회적인 실천과 더불어 사회를 인식하고자 하는 학습을 통해 유가족 운동의 사회적 의미를 구체화시키고 당사자성에 머무는 것을<sup>33)</sup>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유가협의 첫 번째 활동은 모임운영과 학습이었다.

“유가족들이 유가족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임을 운영하면서 의사결정도 해야 하며 학습도 해야 합니다.”(한울삶 소식지)

이는 유가족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만으로 스스로의 운동을 한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죽음의 사회적 의미를 찾고, 사회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한에서 세월호 참사는 향후 사참위 활동 종료 이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의 실현이 어떤 과정 속에서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를 유가족 내부에서 논의하고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운동의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33) “우리 가족들은 견뎌하지 못한 게 큰 흠인데 이런 태도는 철저하게 우리 속에서 없애야 합니다. 내 자식 내세우고 싶고, 어디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내비치려 한다거나, 무슨 일이 있고 난후에 마치 자신이 모든 걸 다한 것처럼 떠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그리고 우리는 남에 대해잘 배려해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만큼 큰 아픔을 겪었거나 겪으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은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민중들이 당하는 조그만 고통에도 가슴아파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한울삶 소식지)

## 5. 산재유가족들의 모임 ‘다시는’

산재사망사고 유가족들의 모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2019년 5월에 결성되었다. 2018년 김용균 사망사고를 계기로 김용균 투쟁에 산재사망 유가족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70년대 이후 산업의 발전과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민주화가 진전되는 와중에도 산재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동에 따른 불가피한 위험으로 간주되면서 산재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 역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산재노동자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전개되었지만 개별 기업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거나 때때로 전국적인 싸움이 전개되더라도 노동운동의 의제 중의 하나로 다루어졌다.

산재노동자 유가족들의 모임이 2019년에 결성될 수 있었던 것은 세월호 이후, 우리사회에서 안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과 연관된다.

세월호 이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에 이어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용어를 사회화하면서 산재사고가 기업활동상의 불가피한 사고라는 인식을 뛰어넘어 외주화라는 정치적, 경제적 제도가 야기한 죽음이라는, 노동자 죽음에 대한 사회구조적 원인을 지목하게 된다.

산재유가족들의 모임이 결성된 것의 의미는 산재사망노동자들을 ‘구조적인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산재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도록 방치한 국가 혹은 제도적 문제를 가해자로 지목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산업재해에 따른 피해는 근대 자본주의 이래 제도화된 보상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기업은 산재문제를 은폐하거나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막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산재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웠다. 또한 유가족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었는데, ‘재해자 과실론’이 아주 오랫동안 산재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압박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산재 유가족들의 모임이 결성되었다는 것은 산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며, 나아가 유가족이 나서서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산재노동자의 문제를 사회화시키겠다는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다시는’은 지난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에 앞장서면서 운동사회와 더불어 법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산재노동자 유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당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과정이다.

고 이한빛PD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고 김용균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김용균재단’은 이한빛과 김용균을 기리고 기억하는 공간이라기 보다는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김용균재단은 유가족들과의 네트워크와는 별도로 이한빛과 김용균의 죽음 이후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불합리한 노동현장의 개선을 자신의 목적으로 설정하면서 유가족 운동의 또 다른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 6. 결론 : 계속되는 유가족 운동과 남겨진 문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유가족 운동은 그 자체의 ‘독립적인 운동’으로 조명받기 보다는 민주화운동의 부분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5·18유가족의 경우도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는 이미지에 가둬져 유가족 운동으로서의 적극적인 평가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소선의 경우 전태일 열사의 상징화와 더불어 이소선의 숭고함과 헌신이 추앙되면서 전태일-이소선을 신화화하는 흐름 속에 이소선이 행한 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유보되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의 운동은 기존의 시민사회운동진영과 함께 하면서도 독자적인 흐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산재 유가족들 역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과정에서 독자적인 활동력을 담보하면서 기존의 노동운동의 흐름과는 독립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거꾸로 이소선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유가족 운동을 하나의 독자적인 운동으로서 정립하기 위한 작업들이 요청되고 있다.

이소선의 운동, 유가족의 운동으로 이들의 활동을 본다는 것은 이들 활동상에 공과 과를 평가하고 운동의 한계와 성과를 정리한다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는 이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유가협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가족 운동은 역사적으로 종료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유가협 운동은 ‘독재타도 민주화 쟁취’라는 이념의 차원에서는 일단락 되었을 지라도 전태일, 박창수 열사 등의 정신계승, 즉 노동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오히려 더 사회적 변화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유가협 운동은 이소선 운동의 기본정신, “민주주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다시금 재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유가협의 역할은 오히려 배제되고 차별받는 비정규직 운동에, 민주화 이후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야하는 영역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 민주주의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하는 과정일 뿐임을 몸소 주장해야 할 시대가 아닌가 싶다.

유가족 운동을 이소선, 유가협, 5·18에 이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산재피해자 유가족의 운동까지 연속적으로 파악하고자 했을 때, 유가족 운동이 갖는 공통의 구조와 지속성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왜 유가족들은 그 역사적 형태를 달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가?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믿고 있는 ‘사회시스템’-이 안에는 법과 제도, 정부의 행정조치들,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가치들을 포함한다-이 작동한 결과로, 사회적 죽음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사회적 죽음을 인정하기 보다는 이러한 죽음을 예외적이거나 일상적인 것으로 가치절하하려는 시도를 감행한다. 왜냐하면 ‘정상시스템’이라는 질서는 믿음의 구조에 균열이 갈수록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 한울삼 앞에서 이소선과 박래군 등 유가족들과

다른 한편, 기존의 질서에 편입되어 있던 시민주체는 시민-유가족이라는 새로운 주체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가시화시키고 집단화시키면서 사회구조적 폭력이라는 추상적인 힘의 무게에 눌러 죽임을 당한 죽음의 실체를 사회적으로 드러낸다.

유가족들이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드러내놓을 때, 그 얼굴로 죽음에 대한 규명을 말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드러내야 할 사회적 모순과 균열이 인격화되어 나타난다. 하나는 느닷없이 사회적 질서에서 추방된 자들의 얼굴로, 다른 하나는 피해자임을 선언한 순간 가차없이 추방해버린 지배자의 모습로, 다른 하나는 이 두 상황을 목격하게 된 목격자의 불안한 심정으로.

이렇게 유가족의 운동은 우리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교란시키며 갈등을 증폭시킨다.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특히 유가족의 운동은 격렬한 지지와 옹호, 혐오와 비난의 한가운데에서 존재했다. 그것은 유가족이 내건 운동이 개별적인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상규명의 요구가 결국은 사회의 깊숙한 문제를 건드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진실에 대한 집단적인 불안감의 작동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운동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남아있다.

하나의 치유의 문제이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죽음’에 직면한 유가족들의 치우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규범차원에서도 지지받고 환영받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죽음’에 대한 국가적 조치는 미약한 예방과 죽음에 대한 대응전략에 집중된다.

이소선과 유가협 운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헌신적이고 치열한 투쟁이 일반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온몸으로 받아내야할 혐오 발언들은 유가족이 감당해야할 일반적인 슬픔의 맥락 외의 것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가족들의 치유와 회복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해야 하지만 이것이 자칫 심리적인 치료에 국한되거나 의료적인 치료와 교정의 차원으로 환원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유가족들의 가장 좋은 치유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인정이다. 유가족으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구축하는 것, 그 안에서 사회적 의미를 찾아나가는 것과 유가족의 치유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배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치유가 필요한 순간에서조차 유가족은 사회적인 의미를 재구성하려는 주체가길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의 사회적 인정이 결국 ‘기억’의 문제라는 것이다. 5·18연구자 김정한은 기억의 정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모든 사회운동은 언제나 기억의 정치를 동반한다. 하지만 흔한 오해와는 다르게 기억의 정치는 ‘잊지 않겠다’라거나 ‘계속 기억하겠다’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어떤 기억을 잊지 않고 계속 간직하며 살아간다면 고통스런 삶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신의 기억에만 충실하다면 타인들과 더불어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오히려 기억의 정치는 망각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조건들을 만들어서 기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5·18도 마찬가지다. 진실을 밝히고 학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기념공간을 조성하는 작업은 개인들이 계속 기억하지 않아도 역사로 기억될 수 있는 조건들을 구성한다.”<sup>34)</sup>

34) 김정한, 위의 책, 8쪽.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기억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죽음이 ‘사회적 죽음’(진상규명)으로서 사회에 등록되고, 이로부터 죽음을 둘러싼 책임의 문제(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가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죽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국가적 인정을 전제한다. 이는 동시에 국가가 기억해준다는 것의 불완전함과 모순역시 존재한다. 가령 국가에 대항하는 죽음, 국가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은폐된 죽음에 대해 국가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심경을 자아내게 한다. 열사들의 염원인 평등세상이라는 이념은 실현되지 않았고, 재난 참사를 야기한 사회적 위험은 도처에서 증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죽음만이 국가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은 채 보상과 기념 작업이 진행되거나,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제도개선이 이뤄지면서 국가적 인정이 완료된다는 점이다.

민주화보상법,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과 제도들, 5·18특별법과 유가족 관련 보상제도, 세월호 특별법과 사참위라는 기구,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까지 유가족 운동과정에서 제정된 법과 제도들은 하나같이 진상규명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국가적 인정의 과정은 불가결하다. 국가적 인정 없이 사회적 인정은 굉장히 난망하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죽음에 대한 인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가는 국가의 정당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한에서 사회적 죽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죽음에 대한 국가적 인정은 그 자체로 필요하다. 그것은 국가가 죽음의 의미를 축소하고 선별하여 의미화할지라도 국가적 인정을 매개로 유가족과 운동사회가 기억을 둘러싼 투쟁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중요하다. 그리고 이 투쟁은 새로운 대항적 노동자·시민 주체를 끊임없이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을 지속할 수 있다면 미래에 등장할 또 다른 유가족 운동은 보다 진전된 지형위에서, 이전과는 다른 출발선에서 운동을 펼쳐낼 수 있을 것이다.



## 토 론 회

사회 : 박래군 / 발표 : 전주희

〈 토론자 : 장남수, 유경근, 김혜영, 김미숙 〉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주희라고 합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발표를 계기로 유가족운동들을 짧지만 그것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세삼 느끼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유가족들의 활동에 굉장히 많은 빛을 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운동으로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그런 운동에 대한 평가로써 연구 작업이나 논의작업이 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유가족분들 직접 만나 뵙고 다 일일이 생생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그런 상태에서 글을 쓰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제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는 토론 자리에서 많이 말씀을 대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운동을 살펴보면서 그 유가족운동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유가족운동의 역사적이고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하나는 ‘응답’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운동이었구요.

두 번째는 이 응답을 넘어서 하나의 사회적 책임 주체로써 좀 더 운동이 활동들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응답에서 책임으로’라는 차원에서 지었습니다.

유가족운동은 한국사에서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과 함께 시작되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운동이라고 하면 보통 사회변화를 위한 집단적인 행위와 실천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1인이 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한국사회에서의 유가족운동은 단 한 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그분이 이소선 어머니고요. 이 운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유가협 소식지에 ‘한울삶’이라는 소식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유가족들은 유가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외부의 강제적인 행위에 의해서 혈육을 잃은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가족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삶의 종결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이 해독해야 될 어떤 메시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신과 같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가 되었건, 혹은 죽음 자체가 불분명한 의문의 죽음이 되었건, 혹은 산재나 세월호 같은 사회적 참사로 인한 죽음이 되었건, 이들의 죽음 모두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겨진 자들로서 유가족들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해독해내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유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유가족운동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유가협<sup>35)</sup> 일,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은 다 유가족운동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선택하는 것은 아닌데,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유가족이라고 하는 게 불의의 사고를 겪은 사람이거나 어떤 지위가 아니라, 이거는 단지 운동의 조건이 될 뿐인 거죠.

적극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른 의식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유가족들을 마치 불의의 사건을 겪은 피해자 집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족 집단이 피해자 라는 것은 사회 구조적 문제와 연관된 죽음들이 제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해독해내고 있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무능력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대에 따라서 역사적 형태는 다르지만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사회적 죽음들의 지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열사들의 죽음과 의문사, 그다음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참사, 그다음 노동자 사망사고도 계속되고 있죠. 그 역사적 형태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적 죽음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사회적 죽음이 마치 비민주적이라거나 반인권적 국가시스템의 어떤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가령 박근혜 정부의 무능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고 구조되지 못했다고 하지만 모든 참사에 대해서 모든 정부는 다 무능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혹은

---

35) 사단법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불합리한 구조인가, 이 정부 이 정권만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가족운동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소선 어머니의 운동입니다. ‘이소선 운동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보면, 장례 투쟁부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유가족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같은 형태로 자식들의 죽음을 둘러싼 명예회복이라는 차원에 집중하는, 죽음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우리 이소선 어머니는 유가족운동이라는 이 범주를 처음부터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수행하고자 했던 운동을, 마치 이전부터 준비됐던 듯 처음부터 이어 같다는 거죠.

병원에서 전태일이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이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좁쌀만한 구멍이라도 뚫리면 그걸 보고 학생하고 노동자하고 같이 끝까지 싸워 구멍을 조금씩 넓혀서 그 연약한 노동자들이 자기 할 일을 혹은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엄마가 만들어야 해요.”라고 하는 마지막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후 이소선 여사는 뭘 했냐면, 전태일이 분실하면서 요구한 8개 조항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장례식을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출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누구의 조언이나 아니면 어떠한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장례를 미루면서 전태일 열사의 8가지 조항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으로 회유한다거나 심지어 장례 기간에 납치까지 당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걸 물리치고 결국은 8개 조항을 다 관철해 내고 그러면서 장례 투쟁을 이뤘는데, 당시 장례 투쟁에서, (당시의 사회 분위기였는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에게 하듯, 오히려 그런 이야기까지 돌아갔죠. 지금 유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전태일 죽은 건 이소선 어머니이다, 엄마가 그렇게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웃이나 친척의 입으로 듣게 됩니다.

죄인처럼 얼굴을 들 수 없는 통념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장례 투쟁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나 하면, 전태일의 죽음이 개인의 책임이거나 아니면 개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전태일의 어떠한 유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소선의 목소리와 행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사회적 책임을 되묻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이소선 여사는 노동운동부터 시작이 됐는데, 전태일 분신한 지 2주 후에 청계피복노동조합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 많은 분이 이소선 어머니를 노동운동가라고도 명명을 하는데 노동운동가로 불려질 수 있었던 것은, 이 활동 전반을 보면 전태일 어머니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당시 노동운동이 발전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초창기적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영향을 확장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청계피복노동조합을 조직하는데요. 건설하고. 전태일 친구들과 굉장히 동등한 차원에서 실제적인 조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불법화된 계기들이 있는데 그 청계피복노동조합의 재건이나 합법적 쟁취를 위한 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청계피복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놀라운 건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 현장에 직접 스스로 그냥 달려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연대의 활동들이 초기부터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은 좀 놀랍습니다. ‘동일방직(사건)’이나 ‘YH(사건)<sup>36)</sup>’이나 구로동맹파업<sup>37)</sup>이나 당시의 이제 중요한 투쟁 들에 다 달려가시고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기륭(전자)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쌍차<sup>38)</sup>나 한진중공업 투쟁에서도 계속해서 참여를 하시고 그래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민주노총이 건설이 되고, 노동조합이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됐죠. 그런 후에도 이 이소선 어머니의 문제의식 뭐였냐면 ‘노동조합이 합법화 되었으니까 좋은 세상에 왔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에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분도 놀랍고, 그래서 단지 이소선의 노동운동이 70년대나 80년대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비정규직 문제까지 계속해 확장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전태일 정신의 당대성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들을 스스로 밟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36) YH 사건은 가발수출업체인 YH 무역의 여성 생산직 노동자들이 회사폐업조치에 항의하여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1979년 8월 9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벌어졌으며 경찰이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김경숙이 사망하였다.

37) 1985년 6월 24일 구로공단의 노동조합들이 연대하여 벌인 파업이다.

38) 쌍용자동차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소선 어머니는 공간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주목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소선 어머니가 공간에 집중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가협이 공간인 한울살과 함께 노동조합의 공간이라든지 혹은 노동 교육과 소모임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굉장히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공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노동교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청계피복노조 말고도 노동교실을 통해서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교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점으로 상정이 됐고, 노동교실 통해서 실제로 교육실장을 하시면서 교육도 하고 조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교육하는데 이소선 어머니 역할은 굉장히 중요 했고요. 왜냐면 당시의 청계피복노조도 남성 노동자들 중심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남성 지식인들이나 남성 노동자들이 조직과 교육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 이소선이라고 하는 여성이자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여성 노동자들도 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소선 운동의 정신이 뭐냐 라고 단 한마디의 요약할 수 있다면 그건 연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차이가 없는 통 큰 단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선 운동에서의 연대는 뭐냐 라고 했을 때 당대의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 가령 70년대에는 어린 시다들이 있었고요. 오늘날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을 텐데,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리고 혹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주체화되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기존의 노동운동이 결합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비정규직이 70년대에 어린 시다와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죠. 그래서 이거는 위로부터의 통합 이거나 아니면 통 큰 단결의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노동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연대이고요. 그리고 확장이기도 합니다.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이를 위해서 노동 내부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룡전자의 여성 노동자들 이거나 쌍차투쟁<sup>39)</sup> 이거나 부산의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열사 투쟁<sup>40)</sup>처럼 신자유주의 이후의 구조조정에 내몰리거나 비정규직으로 배제된 노동자들의 문제가 이소선에게 70년대 어린 시다들의 문제였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들이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는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의 원칙이었고요.

그 원칙에 대해서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전태일의 친구들하고도 거침없는 논쟁을 이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소선에게 당시의 모든 운동들이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수렴되고 있었는데, ‘이소선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준거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87년 이후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됐다 하더라도, 이소선의 입장에서는 70년대에 어린 시다들의 존재가 민주주의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거였습니다. 즉 경제적인 민주화가 빠진 상태에서의 민주주의는 되게 허구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당대에도 하고 계셨고 그 이후에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투쟁만으로 수렴하면서 운동이 멈추거나 아니면 중단되거나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87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연들이 여기서 나오지 않은가 라고 하는 판단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소선 어머니 운동에서 유가족운동을 빠트릴 수가 없는데요. 86년 8월 12일에 유가족이 창립됩니다.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죠. 그리고 초대회장으로 이소선 어머니가 선출되었는데 유가족의 운동을 보면 80년대 들어서면서 학생운동과 사회운동들이 활발해지면서 유가족들도 이제 사회적으로 호명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87년 6월 항쟁이 큰 계기였고요. 이한열 열사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한열의 죽음을 계기로 열사와 전사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열사에 대한 의례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내부에서는 열사 정신계승이 어떤 정서적인 요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외쳐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열사 정신의 계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운동 사회가 유가족들을 호출하기 시작합니다.

39) 쌍용차 투쟁 :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76일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단행에 반발해 쌍용자동차의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사건이다.

40) 故김주익열사는 한진중공업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하였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와 고소, 징계만 남발하는 사측을 보며 협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걸 직감하고, 크레인에 오른 지 넉 달 만인 2003년 10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열사 투쟁 외에도 수배중이거나 경찰에 연행됐다 실종되고 의문사한 경우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정권에 대한 저항이 거세졌다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는데요. 저항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진행되면서 이런 의문사 사례들도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유가협으로 유가족 운동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협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운동이 펼쳐졌는데 가족의 죽음을 먼저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면서 이 죽음의 배후에 있는 사회적 억압구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유가협 소식지를 보면요, ‘사회적인 억압구조 즉,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반인간적 사회구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혈육들은 외세에 대항해서 독재정권과 맞서서 또는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묵살하는 체제 폭력에 의해 희생되었다’라고 하면서 당시의 죽음들을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래서 죽음을 사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개인화된 거나 혹은 당시 ‘자식 잡아먹은 부모’라고 하는 도덕적인 비난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의 열사 투쟁 이거나 의문사한 경우도 그렇고 ‘빨갱이’라고 하는 낙인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규범이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시위하다 죽으면 종북이라고 한다, 그런 게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유가협 가족분들의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유가족 운동이 80년대 있어서 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80년대 당시에 운동은 이념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혹은 민족주의와 같은 이념을 앞세우고 이념적 언어들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학생운동이나 지식인 운동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리고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사실 달랐습니다. 왜냐면 유가족들은 이념의 언어 혹은 이성의 언어가 아니라 어떤 감정의 차원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대중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이념적인 언어가 아니라 감정의 차원에서 이 운동이 드러나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의의 죽음으로 자식을 잃은 가족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감정 구조로 건드리게 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족 운동이 민주화운동에 굉장히 보충적 이거나 보조적인 어떤 역할을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면서 이념과 이념 간의 대립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국가폭력의 문제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운동들을 새롭게 구축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유가족들의 감정 구조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저는 자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봤습니다.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유가족들이 이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자책은 상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책이라는 감정을 잘 살펴보면, 자식이 사회적으로 타살을 당했는데 어떤 피해자로서의 감정이나 자식을 끝내 지켜내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가해자로서의 감정 이런 것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매우 독특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열사의 경우에는 남겨진 가족들이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줄 알기 위해서 부단하게 질문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족의 역할은 뭐냐면 이런 개별화된 유가족들의 자책, 예를 들어서 지배적인 우리 사회 규범이 자식의 죽음을 남겨진 가족의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감정입니다, 자책은. 그런데 이 유가족을 통해서 집합적이고 사회적인 운동으로 전환하면서 이 자책은 사라지지 않지만, 자책의 성격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한 자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자신들이 자식의 운동을 반대한 것에 대한 뒤늦은 후회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그동안 사회에 되게 무관심 해왔다고 하는 각성과 동반한 자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대신해서 민주화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힘이 약해서 죽음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책들은 뭐냐면 유가족들이 집단적으로 형성하는 사회적 책임의 다른 이름이고 사회적 책임의 감정적 표현이자 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월어머니회의 형태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월어머니회’같은 경우는 5·18 유가족 운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것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오월어머니회를 보면 5·18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하나의 모델로 가져왔습니다. 오월어머니회 역시 유가족처럼 오히려 이제는 고립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유가족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오월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사업이나 트라우마 치유나 국가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유가족들을 서로 이렇게 상호간 치료할 수 있는 공간과 관계들을 형성하는 모임들로 시작이 됐구요.

그래서 인권 NGO로 출발했지만 교육이나 재활센터로서의 복합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월어머니회가 5·18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가족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5·18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5·18 유가족운동을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오월어머니회의 사례처럼 보다 보편적인 인권 운동의 중심으로 해서 5·18정신을 일반화시키고 세계화시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폭넓게 다가가는 것으로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5·18도 일정한 합법성이나 제도화의 과정들을 밟게 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틀에 갇혀서 국가적인 행사로 퇴색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가족 운동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단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유가족만의 문제는 아니죠.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사실 운동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유가족들의 정치적 행위성은 여전히 중요한 단 생각이 듭니다. 민주화운동으로 김영삼의 문민정부 출현하고 김대중 정부가 탄생하면서 더 이상 열사로 호명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죽음 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사임을 자처하는, 혹은 유서를 쓰는 형식의 열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구요. 대신에 열사로 호명되지 않은 노동자들 자살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IMF로 인한 경제 위기고 거기에 노동자들의 위기가 닥치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것이 김대중정부에서 일어난 묘한 교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더이상 열사 호명 구조가 운동 사회에서 점차 약화되면서 유가족의 활동도 점점 위축되기 시작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문제에 운동 사회가 전면적으로 결합하게 된 것은 세월호 참사가 계기가 됐는데요.

이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과거의 민주화운동 유가족이나 기존 운동세력과 결합한 양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처음에 운동 사회와 결합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 운동 집단들이 뭐라고 하는 집단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유가족들이 이후에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국가에 대해서 배신을 당했고 국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세 가지 운동 의제를 설정하게 됩니다. 하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 건설인데요. 이것을 하면서 천만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되면서 유가족들이 운동과 자연스럽게 결합하게 되는 형태로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민주화운동유가족 같은 경우는 민주화운동 진영이 있었고 운동세력이 있었고 유가족들이 거기에 쫓아가거나 동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면,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히려 독자적인 유가족 운동들을 가지고, 물론 운동 사회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자기 운동의 영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소선 어머니가 온갖 투쟁하는 현장에 그렇게 달려가시는 걸 보고 제가 본 세월호 유가족들의 노란 옷들을 좀 더 많이 생각나게 되는데요. 백남기 농민 사망사고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든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이나 투쟁현장에 노동자들의 싸움 현장에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전체 세월호 유가족 중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활동하는 유가족과 활동하지 않을 유가족 사이에 인식 차이가 이렇게 되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가족협의회 차원의 유가족들 인식이 다 같이 높아지지 않으면, 유가족들의 일부인데 활동에 나서지 않거나 소극적인 유가족들이 ‘우리 진상규명 하는 것도 바쁜데 왜 다른 곳에 결합하냐’라는 차원에서 연대 활동을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후에 유가족 전체에 대한 인식들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 운동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목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과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입니다. 산재사망사고는 이전부터 늘 있어 왔죠.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가 결성됐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는은 2019년 5월에 결성됐습니다. 2018년에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 사고를 계기로 유가족들이 공동기자회견 하는 것들 계기로 해서 서로 안부를 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는이 형성이 됐는데요.

다시는이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노동자의 사망사고, 그로부터 유족들의 주체적인 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생각이 들고, 세월호 이후에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 주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의문사라든지 참사라든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산재사망 같은 경우는 아예 근대자본주의 이래 산재 보장 시스템에 법적으로 다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산재로 인한 사망은 늘고 있고 피해자들은 늘고 있는데 보상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죽었나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데 원인이 뭐냐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일찌감치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기업 차원에서 은폐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공장 안에서 발생하는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확산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산재 유가족들 모임이 결성됐고 그로부터 산재 사망 노동자들이 하나의 구조적인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 산재사망이 반복 일어나도록 방치한 국가 혹은 제도적인 문제를 가해의 위치에 지목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 센터가 있고 김용균 재단이 꾸려졌는데, 이것이 열사 기념사업회처럼 어떤 죽음을 기리는 차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후에 노동 현장의 개선을 자신의 목적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유가족 운동의 또 다른 모델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앞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유가족 운동을 이소선 혹은 유가협, 5·18에 이어서 세월호나 아니면 산재 피해자 유가족 운동까지 연속적인 것을 파악하려고 했을 때, 유가족운동이 갖는 공통의 구조와 지속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왜 유가족들은 역사적 형태를 달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차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믿고 있는 어떤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법과 제도가 있고요. 정부의 행정조치들이 있고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가치들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 시스템이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치 신호등이 자동적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 빨간불이었다 파란불이었다 반복하는 것처럼. 그런데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로 사회적 죽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이러한 사회적 죽음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예외적이거나 일상적인 것으로 가치 절하 하려는 시도들이 감행이 되죠.

왜냐하면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사회의 불안과 위기는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죽음을 사회적 죽음으로 인정하려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싸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유가족들은 사실 기존 질서에 편입된 주체였습니다. 근데 유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체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들을 가시화하고 집단화시키면서 사회구조적 폭력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어떤 사회 구조 저 폭력이라고 하는 추상적 힘의 무게에 눌러서 죽음을 당한 죽음의 실체를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 사회 질서와 불화를 교란시키면서 우리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곤 하죠. 그래서 모든 운동이 그렇긴 하지만, 특히 유가족운동이 어떤 격렬한 지지와 옹호 혹은 혐오와 비난의 한가운데에서 존재하는데요. 그거는 유가족이 내건 운동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폭력적 방식으로 혹은 굉장히 충격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문제제기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성적 언어로써 어떤 설명하는 운동이 아니라 고통과 절규와 눈물과 분노와 이런 감정의 형태로 유가족 운동들이 사회에 계속해 재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격렬한 저항도 일어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 운동 속에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하나는 치유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죽음에 직면한 유가족들의 처우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에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왔냐면 예방이라고 하는 차원 즉 제도적 개선이라고 하는 차원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사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한 차원의 다 집중돼있고 이후에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전혀 아무런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소선 어머니나 유가족들이 했던 정말 헌신과 불굴의 의지로 그 시대를 감내했던 것들을 유가족 일반이 다 유가족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제대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치유를 이야기할 때 의료적 치료 차원으로만 판단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진상규명이라든지 아니면 기억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문제도 치유의 과정에서 같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국 죽음의 사회적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때 쟁점이 되는 게 이 사회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인정, 그러니까 국가가 이 죽음을 인정하는 것을 매개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근데 국가 차원에서는 어떠냐 면요, 국가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차원에서만 이 죽음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보상법이라든지 의문사 관련된 법과 제도라든지 5·18 특별법 또 세월호 특별법과 사참위<sup>41)</sup>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진상규명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효과를 초래하면서 국가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난점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일정하게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라는 속성 자체가 그렇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 국가적 인정을 거부할 것인가라고 했을때 제 판단은 거부할 수 없다, 그런 수준의 인정을 전제한 상태에서 유가족들이 기억을 둘러싼 정부와 계속 지속적인 투쟁들을 운동사회와 함께 이루어 내야 되고, 유가족 앞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후에 다시 미래에 발생할 어떤 유가족들이 지금의 조건보다는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유가족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을 닦아야 하고, 닦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41)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토론회 사진 (좌로부터 박래균, 전주희, 장남수, 유경근, 김혜영, 김미숙)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 박래군

전주희 연구원이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발제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 5·18 이렇게 연구는 돼 있고, 산업재해 관련해서 연구는 되어 있지만, 이것을 유가족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쭉 꿰는 그런 연구들은 우리 사회에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먼저 시작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참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분발했으면 좋겠고요.

죽음이 나오는 유가족이 탄생하는 이런 구조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결과다, 라고 하는 점들을 지적하면서 이소선 어머니의 그런 활동들을 좀 더 돌아보고 유가협 활동들 그리고 다음에 5·18과 관련된 활동들 그러면서 재난 참사 산재 참사까지 이어지는 유가족들의 활동들을 쭉 꿰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발제를 해주신 전주희 연구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연구를 시작으로 유가족운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가족 당사자들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래군

1986년 8월 12일 창립됐던 유가협, 지금 현재 회장을 맡고 계신 장현구 열사의 아버님이신 장남수 회장님의 발표를 먼저 듣겠습니다.



### 장남수

안녕하세요. 유가협 회장 장남수입니다. 저는 이소선 어머니와 유가협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자께서 아주 세밀하게 많은 연구를 하시고 발제문을 썼는데, 참 소망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 말씀드리는데 유가협이 86년 8월 12일 창립되었는데,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85년도 민가협(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 창설됐습니다. 유가협도 민가협과 같이, 붙잡혀 있는 교도소 문 앞이나 이런 데 나와서 소위 감옥투쟁을 하다가 86년이 되었을 때는 유가협 사망자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사망한 자가 여러 명이 됐을 때, 그때 유가협을 창설하게 됐는데, 유가협 창설문에 유가협이 창립된 목적은 권위적인 정권이나 독재 권력에 항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그 유족이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 토론회 발표 장남수

즉, 민주주의 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부모나 가족이 유가협 회원이, 그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소선 어머니께서 처음 창설부터 노력하셨던 그런 건 말씀드렸고, 민가협이 활동할 때 85년 때 이소선 어머니는 민가협에 여러분이 하는 공동의장도 역임하셨다가 유가협이 창설됨으로써 유가협 회장이 되신 겁니다.

유가협이 창설되고 나서 회원들이 처음부터 많은 게 아니고, 처음에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디가 호소할 때가 없어요.

누가 분신을 했다, 누가, 참 희생되는 것은 총탄에 맞아 죽었거나 쇠파이프에 맞아 죽거나, 이렇게 죽은 사람이 그 죽음을 관에서는 소위 그 정부를 반대하는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불온 세력의 가족이 됐습니다, ‘저 사람은 불온가족이다’.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저는 비교적 늦어요. (장현구가) 95년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물론 학생운동은 그 전에 했죠. 92년도에 구속이 되었었고, 그때부터 나는 감시당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난 92년부터 감시자가 되어있었는데, 95년도 죽은 다음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생운동을 하거나 사망자가 나왔을 때 그 주위에 있는 그때까지 알고 지내던 모든 아는 사람들이 죽은 자식은 죽은 놈이니까 니 할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런 데 끼들지 말라, 이런 거는 뭐 남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우리 가족도 똑같았습니다. 내 형제가 많습시다. 형제가 9남매 있는데 그 형제들도 조카 하나 죽었다고 해서 너 그거 잊어버리고 너 할 일 해야지,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이럴 거야, 또 자기네들까지도 혹시 피해를 받을까 봐서 손을 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사이였어요. 혹, 장현구로 인해서 형이나 동생들까지 피해를 입을까 봐서 ‘이거 하지 마십시오, 모른 척하고 사세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저는 95년도에 분신사망을 장현구가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장례 투쟁을 150일 다섯 달 정도를 경찰 병원에서 했어요. 그냥 보낼 수 없다 해서 요구조건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것도 역시 민주 투쟁의 일환이라고 난 보고 있어요. 5개월만에 장례를 했는데 장례를 하고 나니까 그때 같이했던 동료들이나 같이 했던 학생들이 열 두명이나 수배가 됐고 많은 사람이 붙잡혀 가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나오고 나니까 비슷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잡혀가 있는 중에 아, 잡혀가 있지 않고 그냥 있는 중에, 애들을 도울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명동성당에 세 사람이 있더라고. 세 사람인데 결론은 나오지도 못하고, 나오면 잡히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부터 저는 시작을 했죠. 유가협 활동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가협 본부를 찾아간 게 아니고 명동성당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애들을 돕다가 보니까 민가협이 그 당시엔 많이 나와서 민가협이 같이 했어요.

저는 96년 5월에 장례를 했는데, 6월 7일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유가협 중에서 번지수가 잘못되었다 너는 유가협으로 가야 하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유가협에 장현구 영정도 걸려있고 다 있어서 그때부터 유가협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가니까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우리 이소선 어머니님은 학문 쪽으로 학교에 다니거나 많이 배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없는데도 똑똑하셔. 그분을 통해서 똑똑하다는 것은 학교를 뭐 유학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똑똑한 게 아닌 것으로 난 생각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때그때 처세를 잘한 것, 이게 똑똑한 것이지 영 쓸데없는 말을 하자면,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이유를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문부터 사람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지식과 기술을 접목해야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경쟁 사회를 만들어놓고 사람은 만들지 않고 고도의 기술과 저런 걸 넣다 보니까 지금 같은 사회구조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법학 공부만 하다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니 사람들이 사회를 뭐 압니까. 그러니 인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같은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나, 정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없는 데 대학 졸업해 가지고 고시 공부만 10년 이상 떨어졌다가 붙은 사람이 검사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하다가 보니까 지금 정치권의 대통령 물망까지 올라간 거야. 언어도단입니다.

이소선 어머니를 지금도 나는 한 15년인가를 어머니와 같이 있었는데, 내 어머니처럼 이소선 어머니도 현구야 현구야 하면서 그렇게 하고 모든 속 있는 얘기를 하면서 지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많아요. 이소선 어머니를 어머니로 여기는 분이 많지만, 저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소선 어머니가 말했던, 유가협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여의도에서 농성 420일간 농성해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명예회복및 보상에 관한 법과 그 법에 의해서 판정받은 자가 있어요. 그리고 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하는 136명과 민주화운동으로 상해를 입었다고하는 768명 그리고 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해직을 당했거나 감옥을 갔거나 제재를 받았던 분이 구천몇백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법은 끝났지만, 민주유공자 명예에 관한 법을 넣으려고 보니까, 그건 이제 판정이 되고 보니까 200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살아있는 구천몇백명 이분들이 같이 유공자를 만들어야,한다. 사망자 상해자만 해서 되지 않는다. 이 뜻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도 국회에 가서 아는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봤죠.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사망자 상해자는 할 수가 있지만 살아있는 자, 감옥을 갔다 왔거나 해직이 된 자 이런 분들 모두 하게 되면, 자기가 아는 국회의원은 다 감옥 갔다 왔고 그분들은 그것도 있지만, 그분들은 앞으로의 법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법은 1968년부터 97년까지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죽고 감옥에 가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절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런 게 있었는데, 다행히 그분들도 상해자 사망자만 하는 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앞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꼭 이 법을 금년 이내에 통과시키겠습니다. 통과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 한울삶에서 장남수



박래군

회원이 느는 게 슬픈 단체 있죠, 그게 유가협입니다. 제가 유가협 활동하면서도 유가협 회원 자격은 돌아가신 분들이 가족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이 늘어나는 것을 반가워할 수 없는 그런 단체죠. 거기에서 회장으로 역할을 하시는 거고, 나중에 이제 말씀하신 것은 민주화운동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유가족들과 추모단체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 가져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참사 유가족으로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예은이 아빠 유경근 집행위원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 협의회’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 토론회 발표 유경근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제목  
중심 정도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아주 귀한 발제를 해주셨는데 이  
발제에 관련된 내용도 한두 마디 코멘트 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유가족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그 표현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은 왜 운동에 나서는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때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유가족들이 운동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최고의 이유는 먼저 떠난 내 아이와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의미 있는 희생이고 또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가족들은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유가족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유가족들을 어떤 특별한 존재 특히 운동에 나서는 유가족들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분위기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안까진 아니지만 바라는 게 있다면, 유가족을 어떤 특별한 신분 특별한 존재로 보면 우리 사회에는 안전한 사회 그리고 생명과 인권이 최고의 가치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가족이 돼 보니까, 우리 사회는 유가족과 아직 유가족이 안 된 사람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자세한 설명 아까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아직 우리 사회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사건 또는 그 죽음의 내용과 성격을 먼저 보고 그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사건 또는 그 희생의 종류와 성격을 보기 이전에 그게 어떠한 사건이었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잃은 유가족이 있다는 것, 그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천안함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나 다르지 않다는 것, 이것을 우리 모두 함께 공감하고 동의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더 안전하고 생명과 인권이 최고의 가치로 존중받는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상규명을 중심으로 안전한 사회 그리고 인권과 생명이 최고의 가치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서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발제 중에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일부 유가족입니다. 모든 유가족이 그러지 않습니다. 가족협의회도 예를 드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예를 드셨는지는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받아들일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가족운동이라고 표현한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유가족들에게 집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운동에 나서지 않는 유가족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무슨 문제에 있는 것처럼 만일 생각하신다면, 그러한 인식의 전제에는 모든 유가족이 그래야만 한다고 하는 선입견이 존재하는 건 아닌가, 만일 그렇게 따지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오늘 한빛 피디 어머님 우리 용균이 어머님 오셨는데 ‘다시는’도 오늘 말씀하셨죠, ‘다시는’은 더 일부 유가족이죠. 매년 산재로 희생되신 노동자들이 수천 명입니다. ‘다시는’에 속해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 ‘다시는’을 산재 피해자들 가운데 극히 일부의 운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비록 모든 유가족에 비해 소수이거나 일부로 보일지언정 그러나 그 길을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선택한 유가족들의 그 선택과 활동에 집중해서 바라봐주시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섭섭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족협의회에서 집행위원장을 지난 7년 반 중에 일 년 빼고 지금 6년 반 대변인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모든 가족이 총회를 통해서 뽑고 있는데요. 항상 95% 이상의 찬성 동의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그만두었을 때에도 다시 나와서 일을 해야 한다고 가족들의 절대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으로는 더하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협의회가 하는 방향이나 말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꼭 일부 유가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협의회는 대부분 성명서나 글은 제가 일단 초안을 잡으니까요. 그게 맘에 안 들면 그건 저 사람 개인의 의견이야 라고 선동을 합니다. 개인적인 섭섭함도 있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가족협의회에 뭉쳐서, 약 152개의 가정이 하고 있는데요. 가족협의회에 뭉쳐서 함께 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진상규명이 최우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상규명이고, 저희 아이들의 명예회복입니다. 어쨌든 이 진상규명은 철저히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기준과 요구에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상규명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또는 이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피해자들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또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유가족이기에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야 하는 말이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유가족이기에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가족운동 일단 이 표현을 따른다고 했으니까요.

유가족운동을 기존의 시민사회 운동의 논리와 형식에 편입시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유가족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하시는 시민사회 노동운동은 잘 살기 위한 운동입니다. 행복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잘 살기 위한 운동입니다.

유가족운동은 잘 죽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기존 시민사회 노동운동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을 서로가 인정할 때, 시민사회 노동운동이 함께 건강하게 더 큰 힘을 갖고 함께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자리에 유가족들의 속 얘기를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기자회견하는 세월호 유가족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들 아이들 우리 가족들이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죽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활동들이고요. 그래서 유가족 운동은 잘 죽기 위한 운동이다 라는 말로 정리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회운동에 억지로 편입시키는 것,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다음은 이한빛 피디의 어머니이신 김혜영 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 그 열악한 방송 미디어 노동 현장과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업무 강요를 고발하고 세상을 떠난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이었던 이한빛 피디 엄마 김혜영입니다.



▲ 토론회 발표 김혜영

여기 이 작품은 2019년 <이한열기념관> 하고 그다음 작년에 전태일기념관 전시회에서 열렸던 <보고 싶은 얼굴> 전의 한 작품입니다. 이우광 작가님께서 그 아름다운 청년 1, 2 이런 제목으로 만드셨는데 전태일 동상과 후드 자켓을 입고 있는 한빛을 엮었는데요,

앞에는 한빛의 후드 자켓을 입은 진지한 우리 전태일 열사님 그다음 뒤에는 전태일 동상의 환하게 웃고 있는 한빛, 저쪽은 이제 한빛이 자기 옷을 입고 있는 모습 그다음 전태일 동상, 이 두 가지를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우광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된 이유는 한빛의 책꽂이를 찍은 자료 사진을 봤는데 거기에 <전태일평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빛의 모습에서 50년 전 한 청년의 죽음을 떠올렸고,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 현실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며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전태일평전>을 동생 한솔이가 한빛이 마지막으로 가는 길 작별, 그 자리에서 한솔이가 이 책을 형의 가슴에 꼭 안겨주고 한빛이, 형이 하고자 했던 일을 꼭 이루겠다는 말과 함께 이 <전태일평전>을 형에게 주면서 작별을 했습니다.

저도 중학교에 근무했지만, 전태일을 그냥 먼 역사 속의 인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빛이가 간 후에 한빛이가 월급을 거의 다 세월호 4·16연대나 기륭전자, KTX 승무원, 그리고 빈곤사회연대, 이런 데 후원해왔다는 것을 나중에 아빠가 월급통장을 정리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빛이가 참 아름다운 청년이었구나, 참 괜찮은 아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전태일기념관에 와서 보니까 <전태일 열사>의 풀빵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 전태일 열사의 그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한빛도 역시 이어갔고 이뤄가려고 하지 않았었다, 그런 생각 들면서 나의 아들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유가족들은 아직도 자식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쓴 책에서, <네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 이 책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한열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망월동 묘지에서 많은 참배객들이 이렇게 참배하는 것을 보면서 그 어머니께서, 나도 관람객으로 구경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니까 나도 내 아들이 죽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나도 그냥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참배하고 싶다, 그런 말 하면서 나도 구경하고 싶다 이런 말을.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 저도 한빛 엄마고 유가족입니다. 그치만 저는 그동안 유가족이나 피해자라는 말을 저는 안 썼습니다. 왜냐면 슬프고 동정받는 그런 것 같았고, 세월호 유가족처럼 조롱당하는 이 사회가 너무나 싫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근데 우리 가족은 한빛의 죽음이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고 사회적인 죽음이고 사회적 타살이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공유할 책임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한빛은 나만의 아들이 아니라 모두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가족의 정체성을 갖고 피해자 운동의 주체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그런데 저희가 계속 절망하고 힘들 때마다 그래도 우리를 끌어 주는 것은 결국은 이소선 어머니부터 내려온 유가족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도 유가족이 있지만, 유가족들이 저희에게 저희 가족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빛이가 남긴 과제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유가족으로서 피해자 운동의 주체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선하게 사려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힘든 사회는 비정상적인 겁니다. 이런 세상은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한빛이가 왜 죽었을까, 용균이가 왜 죽었을까, 세월호에서 왜 진상규명이 안 될까. 이런 건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사회 전체가 서로 기댈 언덕이 돼주고 손잡아주는 그런 연대가 있을 때만이 이 사회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머릿속에 그 사건이 있었다 이거를 떠나서, 거기에다가 그 사건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무엇을 바꾸어 가고 있는가, 더 나가서 그럼으로써 그것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월호 마스크를 보니까, 기억 책임 약속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기억하고 5·18을 기억하고 민족민주열사를 기억하고 용균이를 기억하고 한빛이를 기억하고 선호를 기억해야지만, 그리고 그들을 잊지 말아야지만, 이 세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고, 더 많은 젊은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각오를, 우리는 서로 연대하면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 그 책에서도 한빛에게 약속한 것처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통해서 이제 한빛이 남긴 과제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혜영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삶은 ‘한빛 엄마’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선 어머니가 남긴 나눔과 연대, 유가족들이 갖고 있는 나눔과 연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한빛의 뜻을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이가 대학생 문학 수상 소감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올겨울은 춥단다, 세월호 참사와 정리해고로 아픈 모든 이들. 덜 추운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라고 썼습니다.

한빛 엄마로서, 유가족으로서, 피해자운동의 주체로써, 지금 우리 코로나로 더 힘든 우리 모두에게 서로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서로 손잡아 주고 서로 업히고 업어주는 기댔 언덕이 되어 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눈썹만치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이 우리 모두와 한빛이의 뜻을 이루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름다운 청년들 1, 2 <이우광 작품>

## 박래군

아직도 한빛이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오는 어머니의 절절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故 이한빛 피디의 아버님도 와계십니다. 이용관 선생님, 저 뒤에 계신 데, 카메라가 안 잡히네요. 여기 가족들이 함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만들어서 한빛이 평상시에 바꾸고 싶었던 미디어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다음은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저는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당한 김용균의 엄마 김미숙입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하고 바로 하청회사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 (고)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용균이는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가지 말라는 곳을 가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큰 일을 당하고 정신없는 저한테 그렇게 말한지라, 처음에는 ‘그런가?’했다가 나중에는 용균이 동료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전혀 회사하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가 용균이한테 잘못을 묻고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처음부터 요구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갔는데 거기 간 이유가,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갔는데 가보니까 현장 물청소를 하고 안전하게, 그러니까, 목숨을 구할 안전줄이라는 톨코드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고 당시에는 그 이전의 형태와 다르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고 꼭 이게 제대로 밝혀질지 아닐지는 몰라도 최대한 내가 자식의 죽음, 더 이상 아들한테 뭐 해줄게 없지만 이것만큼 제대로 밝혀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를 했었습니다.

사고가 그렇게 나는 게 진짜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난 겁니다. 모든 유족이 하는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한 거라고. 누구도 예견하지 않고 사실 생각만 해도 부모들은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런 안전하지 않은 사회가 그냥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사고 이후 봤는데 그게 너무 크게 저한테는 그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들 사고도 너무 큰 충격이었는데 이런 사회가 만연하다 라는 거.

아 정말 비참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게,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 산재 사망사고가 하루에 2,400명이나 죽고 있다라는 게 그중에 하나 한 명이 용균이었지만 다른 누구라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게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용균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특조위<sup>42)</sup>에서 밝혔습니다. ‘용균이는 업무 수칙을 다 지켰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고 원청은 하청을 주었으니 책임이 없고 하청은 ‘내 사업장이 아니니까 권한이 없다’라고 하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회사들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도 처벌 또한 아주 미약하게 거의 실질적으로 감옥에 간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을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용균이 사고 이후에 그 산재 사망사고 유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이라는 모임을 갖고, 이 ‘다시는’이 그냥 모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회의 불의에 맞서서 싸우기 위한 ‘다시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에 주체가 돼 가지고, 또 많은 유족들 함께 하고 또 시민사회, 모든 이거를 막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 72%나 돼 가지고 찬성해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42)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이것을 만든 것은 이렇게 유족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막치고 죽거나 이뿐만이 아니고 유족들도 더 이상은 이런 아픔 겪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저는 김용균재단을 이후에 만들게 되었는데 이런 길이 정말 되게 제가 하는 일이 유족들한테 쫓아가서 사고 날 때마다 가서 손잡아주는 역할 그리고 또 많은 데서 불러서 용균 사고를 얘기해야 되는, 안 그래도 너무 힘들고 아픈데 거기다가 그 사고로 자꾸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유족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왜 여태까지 유족들이 나서지 않고 이런 죽음을, 그 유족들이 나섰더라면, 용균이를 잃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유족들한테 처음에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서 저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 나서게 됐고요. 김용균재단을 만들어서 또 이런 싸움에 주체가 돼서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무슨 일을 할지는 미리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니까 답답하긴 한데, 밝은 사회를 열기 위해서 저희 재단은 만들어졌고요.

저도 용균이 사고 이후에 기자들이 전태일 이소선님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많이 다했다고. 그런데 저는 전태일 그분은 하도 유명하니까 조금은 귀에 익었는데, 이소선 어머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자들이 하도 여기저기서 묻길래 도대체 어떤 분인지 궁금해 갖고 <전태일평전>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소선 어머님이 전태일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렇게 싸워 왔는데, <전태일평전>을 보면서 전혀 변하지 않은 사회를 거기서 맞닥뜨리고, 저도 이렇게 열심히 이소선 어머님이 했는데 뭐가 달라졌지? 나는 전태일 그분이 요구했던 걸 난 아직도 그대로 요구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되게 책을 읽으면서 암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책을 덮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소선 어머님이나 전태일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계속 노동에 대한 그리고 이 사회의 불의에 대한 많은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의 싸움이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 시민사회의 싸움이 그들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 요구하고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매우 고마움이 컸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사회가 노동자나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람이 우선인 사회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은 빠지고 돈만 우선시 하는, 나라 경제 발전만 우선시하는 사회가 되어서, 사람이 제일 중요시 되는 주위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게 희생당한다는 게 저한테는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꼭 풀어 가야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바꾸어 나가야 될지, 많은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의지나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 박래군

김미숙님이 ‘어느 날 갑자기 유가족이 되었다’ 사실 준비된 유가족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유가족이 될 수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시는’이라고 하는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다시는 나와 같은 유가족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모인 게, ‘다시는’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함께 관심 갖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전주희 발표자와 네 분의 유가족들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20-30분 남았는데요. 일단 먼저 전주희 발표자께서 네 분의 이야기를 듣고 코멘트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네 분도 이제 끝나고 나면 각자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차마 다 못하였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 또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주희

준비를 하면서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유가족분들 이야기를 좀 더 생생하게 듣고 인터뷰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 꼭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나 많이 부끄럽고, 고민이 드는 것은 민주화운동유가족과 참사 유가족, 산재 유가족이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왜 운동에 나서게 되고,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공통적으로 살펴보려 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제가 아직도 답을 좀 못 구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가족 간의 차이, 아까 예은 아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화운동유가족과 달리 참사 유가족들은 또 어떻게 다른지, 또 산재 유가족들과도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가족이라는 걸로 일반화시키지 말아야 되고, 구체적인 어떤 고통의 지점이라든지 문제의식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 운동들을 사회화시키고, 또 개별적으로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서의 운동 간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김용균 같은 경우는 특조위가 꾸려져서 보고서가 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5·18유가족의 경우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각각의 운동 과정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살펴보고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후에 후속적인 과제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마무리 발언 >



**박래군**

민주화운동, 재난 참사, 산재, 이 부분을 다 일반화시킬 순 없죠. 그래서 공통점도 있을 것이고 차이점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도 공통점도 또 공유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차이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관심도 갖고 얘기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분 중에서도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네 장남수 아버님.



**장남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가 2000년 이전에는 모든 희생자나 억울한 일을 당해 죽은 분들, 노동자, 학생, 사회인, 그리고 군대 가서 사망한 분들. 이런 모든 분이 어디 가서 묻쳐서 말을 할 곳이 없었어요.

2000년 이전에는 노동조합도 역시 결성이 안되니까 어디 뭐 모이기만 해도 불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80년 유가협이 창설돼서 유가협은 이 자식의 영정을 앞에 걸고 나가서 어떻게 싸울 수 있었던 그런 식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그 죽음의 가족들은 어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이 가서 이루고 장례도 같이 치르고 하면서 만들어졌던 단체가 유가협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정말 어디 가도 친구도 가족도 누구도 나에게 이 공감을 안 해요.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자식의 죽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국가에 180도 반대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경찰서에서도 따라 붙어서 감시를 하는 그런 시대에 유가협에 와보니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똑같은 경우를 당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아, 나뿐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서로가 그 죽음에 대한 외로움을 얘기하면서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겼다고 난 말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정말 외롭고 할 때 유가협에 와서 보니까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에 위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치유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유가협, 한울삶이 치유센터였다, 이렇게들 말하십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35년 동안 우리가 해오면서 그런 역할을 해 왔는데 아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은 몰라요. 왜 우리 부모들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이루고자 했던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하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군**

예, 고맙습니다. 유가족들을 이렇게 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체로 상처를 입는 것 같아요. 친척들이라든지 가족들 내부에서 말이 칼이지 말로 칼을 휘두르는 거죠. 그런 것들에 굉장히 상처를 입고 그래서 이제 참 얘기 하기 힘들고, 이런 데 같은 처지에 있는 유가족들끼리 만나면 속에 있는 얘기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된, 한울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게 아니냐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누가 말씀 하실 분, 유경근님 아까 부족하지 않았나요? 더 하실 말씀.



**유경근**

얘기를 해도 해도 항상 부족하거든요. 제가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장면들 한두 개 정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소선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알았죠. 이런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운동가가 계시구나. 우리가 예은이를 잃고 나서, 운동가가 아니라 (이소선 어머니도) 엄마였구나를 알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작은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를 모시고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처음에 여쭙았던 게 ‘제가 방송하면서 뭐라고 호칭을 불러드려야 할까요’ 그랬더니, 평소에는 이한열 열사 어머니 이렇게 제가 불렀으니까요, 그랬더니 이한열 열사 어머니로 부르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한열이 엄마로 부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대답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소선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우리 배은심 어머니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서로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희는 예은이를 잃고 나니까 열사의 어머니 항상 투쟁의 현장 맨 앞에 서 계신 운동가가 아니라 한열이라는 아들의 엄마였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제가 예은이를 잃고 나서 순식간에 바뀐 저의 가치관이고, 저의 지향을 표현해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물론 항상 다닐 때마다 소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가족협의회<sup>43)</sup> 집행위원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아까도 그랬듯이 항상 그 이외에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예은이 아빠 유경근이라는 수식어를 꼭 붙입니다. 저 역시도 예은이 아빠라고 하는 것이 제가 7년 넘게 50년 가까이 살아왔던 제 모든 인생은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고 이유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많이 인정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협의회에 약 150가정에 가까운 엄마 아빠들, 인원수로 따지면 300명에 가까운 엄마 아빠들이 회원으로 있지만, 이들은 가족협의회 회원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서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단체들과는 매우 성격이 다른 그런 피해자 단체라고 하는 것.

저는 항상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편의나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임원도 선출되고 총회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족협의회 엄마 아빠들은 각각이 모두가 다 가족협의회를 대표해야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 아이의 명예회복은 내가 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명예회복 또 내가 해야 된다.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 비로소 진상규명도 가능하고 명예회복도 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는 것이지 그냥 내 아이만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

43)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한마디 정도 덧붙이자면 어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결정적으로 바뀐 내용 중에 하나는 일을 겪기 전까지는 아빠로서, 제가 딸이 네 명인데요, ‘내 딸은 내가 지킨다’고 자신했습니다.

내 딸은 내가 지키고 내 딸은 내가 보호한다 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세월호 참사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은 내가 얼마나 오만했던가 내가 얼마나 멍청했던가 내 아이들은 내가 지킨다가 아니라 내 아이들의 친구들을 내가 지킨다, 내 이웃의 아이들을 내가 지킨다 라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면, 그랬더라면 우리 아이를 지켜 주는 사람은 이 아빠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의 아빠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는 개인의 안전 개인의 안전의식 이것 벗어나야 하고, 넘어서야 하고 우리 모든 공동체의 안전을, 공동체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할 때 가능하다, 이것이 또 제 결정적으로 바뀐 가치관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많이 어렵고 실제로 많이 부족한 것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족협의회에서 다수의 가족들과 함께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살아 나가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군

가족협의회가 150가족 정도 되는데 각각의 그런 아이들의 엄마 아빠인데, 우리 아이들의 명예회복은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들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내 딸은 내가 지킬 수 있고 키울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내가 오만했다 라고 하는데 참 그렇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준비된 유가족은 없어요. 어느 상황에서 누가 유가족이 될지 모르거든요. 유정근 집행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먼저 겪고 나서 보니까 유가족과 아직 유가족이 안 된 사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 아직 지금 유가족이 아니신 분들도 지금 이런 세상이라면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유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스템 그런 거고 우리 사회가 그런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같이 힘을 합쳐서 바꿔 뉘까 이게 아마 유가족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네, 우리 김혜영 어머니.



## 김혜영

저는 없었어요, 다양한 사회 경험은 없었어요. 학교에서 한 40여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좀 평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시민단체나 운동의 방향 이런 것들은 거창한 건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유가족운동이란 말도 처음 들었지만 아까 전주희 연구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까 박래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앞으로 더 유가족운동에 대해서 연구가 확산되고 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저희 유가족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유가족들은 그냥 아들의 죽음, 자식의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의 죽음을 넘어서 더 이상 이 땅에 죽음이 없어야 되고, 젊은이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유가족 운동을 제가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은이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의 그 죽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서 노력하는 유가족들의 이런 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집중해 주고, 집중해 주는 게 결국 연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장현구 열사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결국 한빛을 잃고 학교를 떠난 다음에 제가 절실하게 느낀 거지만 사람이 우선이라는 그런 교육, 다음에 올바른 노동 가치관, 최소한 생명이 이윤보다는 앞선다는 이런 가치관 하나만 확실하게 애들이 갖고 사회에 나온다면 용균이가 힘들었을 때 한빛이가 힘들었을 때 옆에서 이미 교육받은 애들이 너무 많은 성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냥 외면하지 않을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관계되시는 분이나 정책상으로든지 노동교육, 사람이 우선이다, 생명이 최소한 이윤보다 앞선다 이런 교육은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소선을 알고, 전태일을 알고, 용균이를 알고, 세월호를 알고,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박래군

올해 초가 정년 퇴임인가요? 작년인가요? 중학교 교장선생님이셨는데요, 작년에 정년 퇴임하셨어요.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교육을 하셨는데, 사람이 우선되는 그런 가치관,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미숙 어머니.



김미숙

저도 이렇게 갑자기 일을 크게 당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해주신 얘기들에 저도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안전을 방치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런 아픈 이게 결국은 나만 조심하면 되지 내 가족만 아끼면 되지,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법 어기지 않고 누구나 그렇게 살면 누구나 안전하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을 당하고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저도 누군가의 안전을 아무것도 신경을 안 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다 엉망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내 가정 안에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밖에 나가면 이 안전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

노출되어있으니까 누구라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너무 빈부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항상 있는 집들은 항상 있는 집이니까 그만큼 받고 좋은 일자리로 찾아가는 환경이 되고, 그런데 저처럼 열악한 환경을 가진 나 같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엄청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위로 못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잘못되었고, 이 구조가 결국 어디서 나오냐 하면 교육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교육도 사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돈만 위주로 가게 되고 이 사회안전은 결국은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무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게 그냥 그대로 노출 시키는 게 당연시 되어왔던 거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꾸고 내 주위가 안전해야지 내가 안전하구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되도록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우리가 방심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 안전 생각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의 자책을 해야 되고 이 자책을 넘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좀 배워야만 사회의 흐름을 그렇게 만들어야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 박래군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전하지 못한 사회, 언제든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같이 돌아보고 이에 대해서 진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최근에서 특히 산재 현장, 이런 이슈들에 관련해서 좀 진전도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여기 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산재 가족들 네트워크 이런 데서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 산재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방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국회에 가야 되는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여기서 기업이 빠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되어 버렸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과 관련해서 계속 자꾸 후퇴 시킬려고 해서,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돼서 안산에 4·16재단에 제가 지금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국회를 또 들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장치 저런 장치 빼고 그러니까 자꾸 구멍이 생겨버리죠. 그 구멍 속에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제외 적용을 안 한다는 이게,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이 더 위험한 곳이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건 통계도 제대로 안 잡히는 상황들입니다.

국민소득 40,000\$를 강조할 게 아니라, 아직도 이렇게 후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창피할 줄 알고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이제 우리 오늘 토론회, 이소선 어머니 10주기를 맞아서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민주화운동 유가족, 재난참사 유가족, 산재참사 유가족이 나와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같은 유가족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는 점이 공통적인 같습니다. 물론 각각의 사안들이 다 다르고 차이들도 있고 하지만 이런 쉽게 일괄시킬 순 없지만 유가족들의 마음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유가족들이 계속 듣는 말이 이거거든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제 잊어먹어라. 하는 말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거거든요. 근데 잊어먹고 살 수 없는 게 유가족 이거든요. 이소선 어머니가 아까 유경근씨가 얘기를 했는데 이소선도 엄마다라고 하는 게 전태일 열사가 사실 못생겼잖아요, 그렇죠. 못생겼는데 유가협에 영정 사진을 걸을 때 화가한테 영정 초상화를 그려 오라고 했는데 자꾸 빠꾸를 놓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맨 처음 그린 게 제일 전태일스러웠거든요. 근데 계속 빠꾸를 놓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와서 이쁘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제야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별 수 없이 ‘엄마다’하는 이런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소선 어머니하고 오랫동안 같이 했었는데, 어머니가 남기신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로부터 운동을 배우고 그랬습니다.

어머니한테 운동을 배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가족으로서 저도 활동하고 있는데, 유가족들이 발언하는 만큼 움직이는 만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한 발자국씩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유가족이 그렇게 안 해도 앞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가는데 유가족들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 같이 기억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함께 힘 모아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소선 어머니를 우리 활동가 사회 운동가로서 이소선으로서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또 유가족 운동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는데요.

이소선 어머니 10주기를 맞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추모식은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추모관이 있습니다. 거기 방문해서 추모의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전태일기념관에서 〈목소리〉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이소선 어머니와 관련됐던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자료들도 볼 수 있는 이소선 어머니의 삶을 또 재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리니까 전태일기념관에도 들러서 전시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소선 10주기 토론회, 내가 너의 뜻을 이룰게’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선 10주기 토론회 기록집

# 내가 너의 뜻을 이룰게

-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

2021년 10월 15일 펴냄

펴 낸 곳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기획 총괄 | 오동진  
기획 및 진행 | 오종원, 오채원, 유현아, 장소영  
책임 편집 | 유현아  
구술기록 및 정리 | 오채원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전화 | 02 318 0903  
팩 스 | 02 318 0881  
홈 페이지 | [www.taeil.org](http://www.taeil.org)  
전자우편 | [teail@taeil.org](mailto:teail@taeil.org)

< 비매품 >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전태일기념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소선 10주기 토론회 기록집

# 내가 너의 뜻을 이룰게

이소선에서  
5·18  
사회운동  
세월호  
중대재해 유가족까지

아름다운청년

전태일

전태일기념관

